

HUFS

Cover Story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HUFS
HUFSan의 희망 메시지

Special Theme

HUFS, 혁신과 상생의
2021년을 시작하다

HUFS Topic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8명 배출

HUFS Inside

특수외국어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
K-MOOC 특수외국어 강의



HUFS, 세계를 품다 인제니움칼리지, 미래를 열다



아랍어과 19학번 정일주

세계사를 앞장서 창조해 온 지역과 언어가
문화, 경영, 테크놀로지와 만났다!
INGENIUM COLLEGE!

- 세계 시민과 더불어 소통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통번역
- 국제 관계의 전략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국제전략
- 콘텐츠 전문가의 기획 능력을 갖추게 하는 문화산업콘텐츠
- 미래의 경제와 산업을 주도할 글로벌경영과 마케팅
- 4차산업혁명시대 SW와 AI 기술을 창조적으로 결합하는 ICT&AI



* 전 세계 98개국 832개 대학/기관과 교류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Global HUFS 2021 SPRING Vol. 110

HUFS, 혁신과 상생의 2021년을 시작하다

SPECIAL THEME

- | | | |
|----|------------------------|--|
| 02 | Cover Story |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HUFS - HUFSan의 희망 메시지 |
| 04 | Special Theme | HUFS, 혁신과 상생의 2021년을 시작하다 - 5개 대학 혁신공유교류 협정식 |
| 06 | Theme Interview | HUFS의 미래, 송도캠퍼스 개발에 달려 있다 - 송도캠퍼스 개발 선별 과제 김학태 재무·대외부총장/위원장 |
| 12 | HUFS Interview | 외국학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조희환 중국학대학 명예교수/중국어 59
HUFS발전과 향후 과제를 말하다 전종섭 신임 교수협의회 회장/이종오 신임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내가 사랑한 산스크리트 임근동 인도학과 교수 |
| 18 | HUFS Inside | 특수외국어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 - K-MOOC 특수외국어 강의 오종진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원장 |
| 22 | Global Memoirs | 세상, 그리고 내 안의 세계를 만나다
코로나19 시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교환학생 후기 안유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8 |
| 24 | I am HUFS | 이커머스의 무한 가능성
제1회 U-Commerce Competition(UCC) 우수상·장려상 수상 김연서 외 4명/류선경 외 3명 |
| 26 | Global Issue | HUFS에서 인공지능(AI)을 배워야 하는 이유 이정 GBT학부 교수 |

HUFS NEWS

- | | | |
|----|------------------------|--|
| 30 | HUFS Topics |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2021년 이커머스트성화대학 협약 체결
융합인재대학, 한국무역협회와 산학협력 MOU 체결
램지 테미로프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 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8명 배출 |
| 34 | HUFS Today | |
| 37 | HUFS Academies | |
| 41 | HUFS Professors | |
| 44 | HUFS Institutes | |
| 46 | HUFS Books | |
| 48 | CUFS News | |

ALUMNI & DONATION

- | | |
|----|----------------------|
| 50 | HUFS Alumni |
| 53 | HUFS Donation |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HUFS HUFSan의 희망 메시지

우리 대학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취소하고 신입생을 위한 축하 영상을 제작해 선보였다. 지난 2월 3일(수) 교내에서 촬영한 신입생 입학 축하 영상에는 우리 대학 홍보대사 '새로미'의 환영 인사와 여러 동문 선배의 축하 메시지, 김인철 총장과 신입생 대표와의 만남 등 다양한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우리 대학의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 축하 영상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해서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선배님들, 동기들!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뵙기를 기원합니다.”

최규동 산업경영공학 21, 신입생



“제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외대만의 독특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여할 것입니다. 걱정도 많지만 든든한 외대와 함께라면 더욱 크고 밝은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경 국제통상 21, 신입생



“지난해와 달리 신입생 여러분이 대학에 입학한 2021년은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외대에 재학하는 동안 외대를 통해서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강유덕 Language & Trade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최강자 한국외대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제교류처는 신입생 여러분이 글로벌 전문가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옆에서 돕겠습니다.”

이유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국제교류처장



“한국외대 학생상담센터는 신입생 여러분의 자기 성장과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전재은 사범대학 교직부 교수, 학생상담센터장



“대학 1학년 때 ‘글로벌 경제 활동의 주역이 되자’고 꿈꿨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이 길을 걸어오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꿈을 갖고 멋진 대학 생활을 즐기기를 바랍니다.”

권평오 무역 78,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한국외대 진로취업지원센터는 신입생 여러분의 진로와 취업, 경력 관리를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오세홍 바이오메디컬공학부 교수, 진로취업지원센터장



“신입생 여러분, 우리 멋진 한국외대에 입학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곳에서 즐겁고 보람된 대학 생활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Yaroslava Pakulova 노어과 교수



“학교 경비보안업체 에스원은 신입생 여러분의 안전하고 건강한 대학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기원합니다.”

구영수 캠퍼스 경비(에스원) 반장



“한국외대의 학생식당이 궁금하시죠? 신선한 재료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최덕규 학생식당 조리장



“한국외대에서 신입생 여러분은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와 문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국 생활과 문화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Mukendi Magloire Tshikulu 경영 18, 외국인 유학생회 대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 한국외대에서 보낸 4년이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가꿔 나가기 바랍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소정 스페인어 96, KBS 뉴스 앵커



“대학 시절을 떠올리면 신입생이던 시간이 아직도 가슴 한편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도 평생 남을 이 시절에 멋지고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기 바랍니다.”

김지석 독일어교육 00, 영화배우



“제가 신입생이던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대학 생활을 많이 즐기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올해는 신입생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에민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 20



HUFS, 혁신과 상생의 2021년을 시작하다

5개 대학 혁신공유교류 협정식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와 함께 서울 동부권 5개 대학 혁신공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에 대비해 개방형 교육 플랫폼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교육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우리 대학이 혁신과 상생의 2021년을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서울 동부권 5개 대학과 혁신공유교류 협정 체결

우리 대학은 지난 2월 19일(금)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 타볼로 24에서 뉴노멀 시대의 비대면 교육 내실화를 위한 디지털 혁신 교육 콘텐츠 및 기술 공유 협력을 위해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와 혁신공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 대학은 글로벌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인재 양성과 혁신 가치 창출이라는 대학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간 실질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공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실천할 계획이다.

협정서 체결에 앞서 열린 5개 대학 콜로кви엄은 대학별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한양대는 실시간 다자간 원격수업 모델 'HY-LIVE 교육 플랫폼'을 선보였고, 우리 대학은 '융합인재대학'을 소개했으며, 성균관대는 'SKKU × K-BioX'를 공유했다. 고려대는 'KU-Insight Miner'와 'KU 자유정의진리'를 소개했고, 경희대는 'SDGs 기반 사회적 가치창출 교육과정 도입'과 '사회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등을 공유했다.



전국 여러 지역의 대학과 협업하는 계기 마련

우리 대학 김민철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대학들은 여태까지 학과 울타리와 전공 울타리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제는 대학들간 울타리를 낮춰 공유·교류 협력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의 의미를 혁신공유교류 협력 모델 구축 및 실천에 두고, 5개 대학간 공유·교류 협력 사업이 다른 대학들에 전파되고 또 다른 그룹의 대학과 협업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 공유·교류 모델이 전국 여러 지역 대학들의 협력을 선도하는 동인이 되기 위해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를 다짐한다”고 말했다.

서울 동부권 5개 대학 혁신공유교류 협정은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에 대비해 개방형 교육 플랫폼을 공유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교육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의 첫걸음이다. 또한 오는 6월에는 혁신지원사업 공동 성과포럼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HUFS의 미래, 송도캠퍼스 개발에 달려 있다

송도캠퍼스 개발 선별 과제

한국외대 송도캠퍼스 개발은

학교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대한 프로젝트다.

학내외 구성원 모두 송도캠퍼스 개발을 두고

우리 대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송도캠퍼스 개발 사업을 이끌어가는 김학태 재무·대외부총장/위원장이
송도캠퍼스 개발의 선별 과제 등 관련 이야기를 전한다.

재무·대외부총장/위원장
김학태

HUFS 송도캠퍼스 개발 진행 현황

우리 대학은 지난해 11월 20일(금) 서울캠퍼스 대학본부에서 현대건설, 한국투자증권, ZINOL D&C와 한국외대 송도캠퍼스 개발 컨소시엄 조성 및 MOU를 체결했다. 송도캠퍼스 데이터센터 개발 등 송도캠퍼스를 혁신캠퍼스로 개발하기 위함이다. 송도캠퍼스 개발 컨소시엄 조성 및 현재 송도캠퍼스 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 진행 현황을 김학태 재무·대외부총장/위원장(이하 위원장)이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송도캠퍼스 개발에 있어 우리 학교는 송도캠퍼스 일부 대지(약 1,300~1,500평)를 제공하고, 현대건설은 지분 투자, 책임 시공, IDC 사업자 유치 등을 담당하며, KT/삼성SDS는 서버와 네트워크 설치 및 운영을 맡습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외부 자금 중계 및 운영을 담당하고, ZINOL D&C는 각종 인허가 업무, 금융구조 설계 및 자문을 맡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교 내 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송도캠퍼스 데이터센터 개발 등 혁신캠퍼스 개발 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과 대학평의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어 올 1월 교육부에 혁신캠퍼스 개발과 관련한 위치 변경 계획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교육부의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가 예정된 상태입니다.”

관련 기관과 지속적 협업... 쉽없는 노력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대학에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송도캠퍼스 개발 역시 2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김학태 위원장은 “지난해인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무엇보다 먼저, 감염 위험 때문에 정상적인 강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온라인 원격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감소, 기숙사 운영 적자, 식당 및 부대시설 운영 적자 등 학교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송도캠퍼스 개발을 위한 노력은 쉽없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연수구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교 내부 구성원 주체와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도캠퍼스 개발의 청사진을
제시하다

우리 대학 송도캠퍼스 개발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단계는 2,680㎡(810평) 규모의 외대국제교육센터로 지난 2019년 완공했다. 300여 명을 수용하는 이곳에는 강의실과 강당, 행정실, 전시실, 수장고, 교·강사실이 있다. 2단계는 최첨단 콤플렉스와 글로벌 스탠다드 기숙사, 데이터교육·연구·산학 콤플렉스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2단계 개발 계획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첨단 콤플렉스는 13,860㎡(4,200평) 규모로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강의실과 연구실, 도서관, 컨퍼런스홀, 열람실, 식당, 휴게실, 행정실, 부속기관 등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기숙사는 12,540㎡(3,800평) 규모로 7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인 1실 기숙사와 식당, 편의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것입니다. 데이터교육·연구·산학 콤플렉스는 28,050㎡(8,500평) 규모로 3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강의실과 산학협력실, 교육연구센터, 행정사무실 등이 자리할 예정입니다.”

구분	건물명	층	연면적	수용인원	소요실
1단계 (2019 완공)	외대국제교육센터	3F	2,680㎡ (810평)	약 300명	• 강의실, 강당, 행정실, 전시실, 수장고, 교·강사실
2단계 (2021~2024)	최첨단 Complex (2021~2022)	5F	13,860㎡ (4,200평)	약 1,000명	• 강의실, 연구실, 도서관 • 컨퍼런스홀, 열람실, 식당, 휴게실, 행정실, 부속기관 등
	Global Standard 기숙사 (2021~2022)	8F~12F	12,540㎡ (3,800평)	약 700명	• 기숙사(2인 1실) • 식당, 편의복지시설 등
	데이터교육·연구· 산학 Complex (2021~2024)	8F	28,050㎡ (8,500평)	약 300명	• 강의실, 산학협력실, 교육연구센터, 행정사무실 등

선별 과제는
교육부의 위치 변경 승인

송도캠퍼스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눈에 띄는 혁신캠퍼스가 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송도캠퍼스 개발의 선별 과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했다. 김학태 위원장은 송도캠퍼스 개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육부로부터 송도 부지에 캠퍼스 이전을 위한 위치 변경 승인을 받는 것’을 꼽았다.

“올 1월 교육부에 위치 변경 계획과 관련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의 간접적 영향으로 정상적인 심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치 변경 계획과 관련해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수협의회와 학생회가 동의해준다면 빠른 시일 안에 승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구성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위치 변경 승인이 이뤄지면 곧바로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강의동, 기숙사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건설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송도캠퍼스 개발과 관련해 2년 전부터 법인, 학교 집행부, 교수 대표, 학생 대표, 교직원 대표 등이 참여한 송도 부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18년 11월 26일부터 2020년 2월 10일까지 10회 이상의 회의를 통해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김학태 위원장은 송도캠퍼스 개발에 대한 동문과 교수, 교직원, 학생의 관심을 강조했다.

“송도캠퍼스 개발은 우리 대학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를 위해 동문과 교수, 교직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도캠퍼스 개발을 통해
기대하는 4가지

송도캠퍼스 조성은 우리 대학이 더욱 경쟁력 있는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김학태 위원장에게 송도캠퍼스 개발을 통해 기대하는 것을 물었다.

“우리 대학은 IFEZ 내 송도의 글로벌 교육과 비즈니스 허브 도시로서의 위치적 이점, 우리 대학의 역량을 연계함으로써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어문·인문학을 통한 학문적 보완 효과 및 지역 불균형 해소와 평생 교육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연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 김학태 위원장은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4가지로 나눠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글로벌 인재 양성, 학문적 보완, 지역사회 연계, 바이오 및 데이터사이언스 분야 인력 양성의 초석 마련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글로벌 인재 양성이 핵심입니다. 송도캠퍼스는 외국인 중심의 캠퍼스로 전주기적 학습 지원을 통해 다양한 학문적 지식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세계 유통과 물류의 중심을 추구하는 인천의 비전에 부합합니다. 두 번째, 학문적 보완 효과를 기대합니다. 송도캠퍼스는 어문학·인문학 중심의 연구 수행 및 관련 학과 신설을 통해 공학계열 중심의 인천 지역에 대한 학문적 보완이 가능하며, 외국 대학과의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해 국제 협력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이에 대한 연구 지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연계 효과입니다. 송도캠퍼스는 송도 지역 인근의 주민 및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학위·비학위 교육과정과 언어·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및 데이터사이언스 분야 인력 양성의 초석을 마련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대학은 송도캠퍼스에 5년 이상의 장기적 계획으로 데이터사이언스학부를 신설하고, 글로벌캠퍼스에 있는 바이오메디컬공학부를 송도캠퍼스로 확대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는 서울에 위치한 대학의 지방 이전을 통해 서울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에도 부응합니다.”

“우리 대학을 둘러싼 최근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등록금이 12년 이상 동결돼 학교 재정이
많이 어렵고, 1년 이상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구성원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송도캠퍼스 개발은
학교의 미래가 달린 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과제를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우리 대학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라 믿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H

U



HUFS INTERVIEW

외국학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조희환 중국학대학 명예교수/중국어 59

HUFS 발전과 향후 과제를 말하다
전종섭 신임 교수협의회 회장/이종오 신임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내가 사랑한 산스크리트
임근동 인도학과 교수



F

S

외국학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

한국외대 중국학대학 조희환 명예교수가 학교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기탁해 눈길을 끈다. 모교의 외국학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한 조희환 명예교수를 만났다.

학교 발전기금 2억원 기탁
조희환 중국학대학 명예교수(중국어 59)

● 학교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기탁했습니다. 발전기금을 기탁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사립대학은 발전기금이 많이 들어와야 학교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는 이 부분이 미흡한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최근 아내가 오래전에 사둔 작은 아파트 값이 올라 그걸 처분했고,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거라도 기탁을 하자’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 외대 출신 중 기업가가 많이 나와서 학교 발전기금이 더욱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 우리 대학 중국어과 출신으로 모교에서 중국학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중국학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남들처럼 중국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신 중국어과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해당 국가에 대한 역사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등 알맹이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 정치사조〉, 〈중국 경제〉, 〈중국 전통사상〉 같은 다양한 강의를 개설해 학생들에게 선보인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학생들에게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에 중국 원어 자료를 복사해 책으로 엮은 다음 그것을 번역해서 읽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 앞으로 우리 대학은 외국학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 대학은 외국학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학은 ‘외국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또는 ‘외국에서 수입한 학문’을 뜻합니다. 외국학은 해당 국가의 알맹이를 연구하는 동시에 일반 생활 언어까지 배울 수 있는 학문입니다. 또한 외국학을 가르칠 때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4대 강국과 그 외의 국가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4대 강국의 경우 정치(군사·외교), 경제(산업·무역), 지리, 역사, 문화 등 중요한 분야를 학습하게 하고, 그 외의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원어 교재로 경제(산업·무역), 문화, 자연물, 인조물 등에서 가치 있는 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별난 학생이 되어라’ 말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 파고드는 유별난 학생이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 글로벌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교수로 강단에 설 때도 학생들에게 늘 강조한 말인데, ‘유별난 학생이 되어라’ 말하고 싶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 배우고 파고들며 공부하는 유별난 학생일수록 그 분야의 전문가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는 세계 각국의 전문가인 교수들이 많이 있어 글로벌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의 아주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별난 학생이 많이 생겨야 한국외대가 일류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들려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월혁명 당시 동지들과의 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대한민국 의병과 관계된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며 은퇴 후의 삶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한국외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와 대학평의회(이하 '대평의')가 올해 회장과 의장을 새로 맞이했다. 전종섭 신임 교협 회장과 이종오 신임 대평의 의장을 만나 HUFS 발전과 향후 과제 및 포부를 들어봤다.

HUFS 발전과 향후 과제를 말하다

소통, 화합, 협력의 문화 안착

전종섭 신임 교수협의회 회장

- **교협 회장을 맡게 된 소감을 들려주세요.**

교협 34년 역사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선거에서 회장이 됐습니다. 가슴 벅찬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재 우리 대학은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 대학평가 등 대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살아남는 걸 넘어 국내 5위권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려면 교협이 학교 정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수행하면서 학교를 도와야 할 때는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대학의 지속가능한 성장, 높은 교육 만족도 제고, 사회가 요구하는 우수한 인재 양성 부분에서 학교를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교협의 핵심적 역할과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중점 과제는 무엇입니까?**

교협의 핵심적 역할은 '교권'과 '복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가 발전하려면 구성원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중 특별히 교육의 주체인 교수님들이 행복감을 갖고 신나게 가르치고 연구하는 것이 학교의 위기 상황 극복이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협은 본연의 역할인 교수님들의 교권과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교협이 직면한 중점 과제는 올 11월 말경 열릴 총장 후보 선거입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총장 후보 선출제도 개정안'에 따라 교수, 직원, 학생 3주체가 참여하는 선거를 치르기 위해, 최근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총장후보 선거의 유권자가 450여 명의 교수님들이었는데, 이제는 직원, 학생이 포함되면서 유권자 수만 18,000 명 이상입니다. 당연히 선거 비용도 많이 들고, 코로나 시대에 치르는 투표이다 보니 세세한 투표 방법이나 유권자 관리 등 대처해야 할 과제가 엄중합니다. 작년에 선출제도 개정안이 급히 만들어진 탓에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데, 총추위에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의 자문을 받으며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의 시행세칙을 만들어 세 걸음 네 걸음 내다보는 꼼꼼한 선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교협을 이끌어가는 포부를 들려주세요.**

새로운 소통, 화합, 협력의 문화를 안착시키는 교협 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교협 회장에 취임한지 이틀 만에 '교협 아고라 게시판'을 개설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협 아고라 게시판 개설은 정보지원처가 학교의 e-class 시스템을 활용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 교수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어 다양성 속에서 건설적 여론을 만들어나가고, 편안한 분위기의 온라인 토론회 등을 활성화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교협이 되게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종오 신임 대학평의회 의장

- **대평의 의장을 맡게 된 소감을 들려주세요.**

지난해 교협 추천으로 대평의 구성원이 됐고, 2년차인 올해 대평의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학교에 재직하면서 보니 학교의 집행 운영 방식이 규정과 학칙 등을 따르지 않고 이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절차적 민주성을 거치지 않은 채 의결돼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저는 까다롭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원칙론자인 만큼 대평의 의장을 맡은 이번 기회에 절차적 민주성을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 **대평의의 핵심적 역할과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한 중점 과제는 무엇입니까?**

대평의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근거해 설치된 기구로 교수 대표 5명, 교직원 대표 2명, 학생 대표 2명, 동문 대표 1명, 발전기여자 대표 1명 모두 11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평의의 핵심적 역할은 심의 기능인데, 그중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즉,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대평의는 자문 기능도 합니다.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대평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과, 단과대학, 전체 교수회, 학교 집행부의 학사 운영 등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그 절차가 정당했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이와 관련해 학내외 구성원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학교 집행부가 어떤 사안에 학칙 규정 등을 적용할 때 관례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평의가 대학 안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에 대해 대평의의 취지와 본질을 잘 살려서 학내외 구성원에게 알려주는 것도 우리 대학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대평의 의장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들려주세요.**

대평의는 학교의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학내외 대평의 구성원 11명 전원이 원칙에 중점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정안이 심의요건을 충분히 갖췄는지, 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여 사안들의 독단적 진행을 바로잡는 지킴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한 산스크리트

한국외대 인도학과 임근동 교수가 아시아인으로서 두 번째로 인도 정부에서 수여하는
‘2019 세계 산스크리트 상(World Sanskrit Award)’을 수상해 크게 주목받았다.
이 수상으로 임근동 교수는 인도 고전어인 산스크리트 연구와 번역, 교육에의 공헌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아시아 두 번째로 ‘세계 산스크리트 상’ 수상 임근동 인도학과 교수

- **세계 산스크리트 상 수상 소감과 수상 이유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산스크리트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학문이 많이 발전되어 있고, 학문적인 역사와 학문에 대한 자부심도 깊습니다. 그러한 일본보다 먼저 수상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입니다. 수상 이유는 먼저, 운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산스크리트를 공부해오고,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로 산스크리트와 관련된 주제로 계속 논문을 발표하고, 「우파니샤드」를 비롯한 산스크리트 작품을 번역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랫동안 산스크리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중세 르네상스의 영향력이 서양 중심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지금 이 시간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생존해 있을 때 중세 르네상스의 영향력이 끝나고 새로운 르네상스인 현대 르네상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르네상스는 동양의 고전을 원천으로 삼아 시작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동양의 고전 가운데서도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인 황하문명권의 중국의 고전과 인더스문명권의 인도의 고전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한문과 산스크리트를 공부해야 하는데, 한문은 우리나라가 한문 문화권에 속하니까 독학으로 공부해도 가능하고, 산스크리트는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랫동안 산스크리트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 **산스크리트와 관련된 연구 및 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도에 유학을 가서 산스크리트 디플로마 시험 공부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디플로마 시험 과목 가운데 산스크리트 문법이 있었습니다. 명사의 격변화 형태를 암기해야 했는데, 격변화 형태가 너무 복잡해서 암기하다 보니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마침 상비약으로 가지고 있던 우황청심환을 먹었고, 어지럼증이 사라져 무사히 시험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운이 좋게 제가 산스크리트 디플로마 과정 수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산스크리트 디플로마 과정을 함께 공

부한 학생들 가운데 텔리대학교의 힌디어과 교수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텔리대학교 힌디어과 교수인 자신을 제치고 수석을 해서 기분이 좋으며 집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 **인도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은 사회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이 젊음의 무게를 버거워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을 넓고 멀리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주세요.**

저는 동양의 고전, 특히 인도와 중국의 고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산스크리트와 더불어 한문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다 세계 산스크리트 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문 공부를 그만두었습니다. 안타깝지만 한문을 공부할 시간에 산스크리트를 공부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산스크리트 상 수상을 통해서 제가 산스크리트의 국가대표가 되었다는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좋은 점도 저의 산스크리트 실력이 우리나라의 산스크리트 실력으로 해외에 알려지는 상황이 되어 버려 마음의 부담이 큼니다. 주역 중천견괘의 초구 효사에 잠용물용(潛龍勿龍)이 있습니다. ‘큰일을 위해 아직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숨어 실력을 기른다’는 것이 대강의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산스크리트를 공부하는 게 당분간 저의 계획입니다.



특수외국어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 K-MOOC 특수외국어 강의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원장
오종진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교수



한국외대가 국가평생교육원과 함께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자인 K-MOOC 특수외국어 강의를 선보이고 있다.
올 2월부터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원장을 맡게 된 오종진 원장에게
K-MOOC 특수외국어 강의란 무엇이며, 특수외국어 저변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물었다.

K-MOOC 특수외국어 대표주자, 한국외대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의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사업 지원을 받아 국가평생교육원과 함께 K-MOOC를 통해 새로운 특수외국어 강의를 선보여 주목받았다. K-MOOC는 '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의 약자로, 온라인을 활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높은 수준의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시스템이다.

"K-MOOC는 교육부가 총괄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국내 대학 및 연구소 116곳이 참여합니다.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도 일반인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스와힐리어, 태국어, 폴란드어, 이란어, 힌디어를 비롯해 포르투갈어와 몽골어 강의를 운영하며, 올해 우즈베크어, 터키어, 마인어, 헝가리어 강의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특수외국어 심화 과정뿐 아니라 의료통역·IT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 과정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K-MOOC 특수외국어 강의를 이끌고 있는 한국외대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오종진 원장의 말이다. 오종진 원장은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 사업으로 특수외국어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 사업단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내실화, 표준화, 전문화, 공유화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학문 후속세대뿐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외국어 교육을 진행하고자 했고, K-MOOC 사업을 통해 이를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어문학과 지역학이라는 우리 대학의 핵심 가치를 심화시킬뿐 아니라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일반인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봅니다."

외대 교수진의 특수외국어 교육 노하우를 담다

현재 우리 대학이 K-MOOC를 통해 선보이는 특수외국어 강의는 스와힐리어와 포르투갈어, 태국어, 폴란드어, 이란어, 힌디어, 몽골어 7가지다. 개설 언어별 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와힐리어는 '스와힐리어 기초회화', 포르투갈어는 '포르투갈어 Pre-A1', 태국어는 '태국어 문자와 기초회화', 폴란드어는 '폴란드어 ABC와 기초여행회화', 이란어는 '기초이란어(페르시아어)', 힌디어는 '힌디어 문자 및 발음과 기초여행회화', 몽골어는 '기초 몽골어'다. 또한 이 7가지 특수외국어 외에 올해 4개 언어에 대한 강의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우즈베크어와 터키어, 마인어, 헝가리어가 그것이다. 우즈베크어는 '기초 우즈베크어', 터키어는 '기초 터키어', 마인어는 '기초 마인어', 헝가리어는 '기초 헝가리어'라는 이름(가제)으로 강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외대 K-MOOC 특수외국어 강의는 우리 대학 교수진의 특수외국어 교육 노하우와, 해당 언어의 문법·회화뿐 아니라 현지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려는 수업 방식이 여느 특수외국어 강의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의 K-MOOC 특수 외국어 강의가 어느 외국어 강의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오종진 원장은 “우리 대학 교수진의 특수외국어 교육 노하우와 해당 언어의 문법·회화뿐 아니라 현지 문화를 소개함으로써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려는 수업 방식이 우리 대학 K-MOOC 특수외국어 강의의 차별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종진 원장은 K-MOOC 특수외국어 강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진을 향한 고마움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온택트 시대를 맞아 사람들은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홈러닝과 자기 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교수진이 학부생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특수외국어 강의를 제공하고자 강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원래 우리 대학의 K-MOOC 강의 개발 1단계 목표는 8개였으나 11개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특수외국어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진이 해당 강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교수진 중에는 K-MOOC 강의를 학부에서 진행하는 전공 수업과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일환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강의가 어려워므로 K-MOOC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이 해당 강의를 듣고 난 뒤 본 수업에서 이에 관한 내용을 토론하는 등 심화 학습을 하는 식이죠.”

〈한국외대 K-MOOC 특수외국어 강의〉		
	개설 언어	강의명
기존 강의	스와힐리어	스와힐리어 기초회화
	포르투갈어	포르투갈어 Pre-A1
	태국어	태국어 문자와 기초회화
	폴란드어	폴란드어 ABC와 기초여행회화
	이란어	기초이란어(페르시아어)
	힌디어	힌디어 문자 및 발음과 기초여행회화
신설 예정 강의	몽골어	기초 몽골어
	우즈베크어	기초 우즈베크어
	터키어	기초 터키어
	마인어	기초 마인어
	헝가리어	기초 헝가리어

*변동가능

대국민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특수외국어교육진흥법에 따라 특수외국어의 학부 교육 내실화와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대국민 확산이라는 두 가지 큰 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대학이 초반에는 특수외국어의 대국민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조금 있었으나, 최근 이 부분에 대해 공격적일 정도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K-MOOC 특수외국어 강의 역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대국민 확산 사업의 하나입니다. 또한 시교육청과 협업체 마련한 초중고 특수어 관련 특강, 인근 및 다른 지역 대학 여름캠프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밖에 세종학당, 한국문화홍보원, 경찰청 등의 기관과 협업체 선보이는 언어 및 문화 교육이 있습니다.”

K-MOOC 특수외국어 강의를 비롯한 다양한 특수외국어 관련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의 고유 가치로 일컬어지는 언어 교육을 주특기로 살릴 수 있는 분야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여러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는데 따른 어려움도 있다.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특수외국어를 교육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인 교수진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특수외국어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중국어 같이 대중적이고 일반화된 언어에 비해 교육을 전담할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사업을 펼치다 보니 현실적으로 특수외국어 교수진의 업무량이 무척 많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학문 후속세대를 좀더 빠르게, 그리고 많이 양성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 봅니다.”

특수외국어 관련 Language-MOOC 개발을 꿈꾸다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이번 사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수외국어 온라인 학습 과정을 K-MOOC로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특수외국어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 내에선 전공 수업과 병행해 활용함으로써 대학 수업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K-MOOC 특수외국어 강의는 우리 대학 특수외국어교육 사업단의 사업 중 하나지만, 강의 수를 늘리는 등 지금보다 좀더 확대한다면 장기적으로 다양하고 체계화된 온라인 언어 교육 체제를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사업을 주관하는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의 사업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을 이끌어 가는 포부와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인 외국어 교육과 다른 어느 교육기관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특수외국어 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일반인들도 ‘특수외국어는 외대가 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아시아 거점화 및 우수 강의의 공개 플랫폼 공유를 목표로 특수외국어와 관련된 Language-MOOC를 개발하고, 유럽, 유라시아, 인도·아세안,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등 권역별로 1~2개, 최소 6개 이상의 특수외국어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특수외국어 교육의 아시아 거점화 및 우수 강의의 공개 플랫폼 공유를 목표로 특수외국어와 관련된 Language-MOOC를 개발하고, 유럽, 유라시아, 인도·아세안, 중동·아프리카, 중남미 등 권역별로 1~2개, 최소 6개 이상의 특수외국어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세상, 그리고 내 안의 세계를 만나다

지난 2020년 가을 학기, ‘Come to HUFS, Meet the World’를 제대로 경험했다.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모두 각기 다른 것을 배우겠지만, 나는 그곳에서 ‘나’ 자신을 만났다.
처음 겪는 모든 상황에 부딪히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모양새를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과 문화를 통해 만난 세상(world),
그리고 내 안의 세계(world). 그 모든 게 너무 특별했다.



안유정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18

낭만의 프라하, 그곳으로 떠나요

한국외대에 입학하면서 꼭 목표했던 것은 교환학생이었다. 지난해인 2020년 초부터 준비를 시작해 7+1 파견학생 제도를 통해 체코 프라하에 다녀왔다. 아름답기로 내로라하는 세계 여러 도시 중 프라하를 선택한 이유를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 먼저, 다른 유럽 국가보다 물가가 저렴하다. 특히 ‘물보다 맥주가 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하고 값싼 맥주가 널려 있다. 또한 수학했던 AAU대학교(Anglo American University)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이 아무래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개인적으로 ‘도피’의 목적도 있었다. 몸도 마음도 바쁘게 움직였던 서울에서의 생활, 미래에 대한 걱정, 무게감 있는 우울과 방황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었다.

9월 15일 프라하에 도착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비자 준비는 물론이거니와 ‘시대’라고 부르기도 싫은 코로나19 시대의 여파로 함께 오기로 되어있던 다른 학생들이 줄줄이 교환 포기를 선언했다. 나 또한 갈등의 시간이 있었지만 포기할 용기가 없어 결국엔 비행기를 탔다. 가보니 가길 잘했다. 여행도 아닌 그렇다고 완벽한 현실도 아닌 그곳에서의 생활은 땅에서 2mm 정도 봉 떠 있는 느낌이었다. 초반에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영어를 잘 못하는 탓에 주눅이 들었고, 사람들의 눈에 낯설 내가 어떻게 보일지 걱정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모두 나를 ‘배우는 사람’의 눈으로 봐주었다.



우산 대신 무지개가 드리우는 순간들

영어와 관련해 부끄럽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덴마크에서 온 Mathilde와의 대화에서였다. “체코 사람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잘 안 쓰는 거 같아”라고 말해야 하는데, 순간 ‘umbrella’ 대신 ‘rainbow’라고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했다. 그 순간이 얼마나 웃겼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무지개를 쓰고 다니는 상상을 했고, 우리한테도 무지개가 드리우는 듯했고, 순간이 빛났다. ‘아, 여기에서의 시간은 이렇게 기억될, 이런 분위기로 기억될 이미지들이구나’ 싶었다. 비 오는 날 우산 대신 쓸 수 있는 무지개를 몇 장 챙겨 귀국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꺼내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시간 속의 공간, 여유로움을 배우다

교환학생 경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프라하의 문화는 한마디로 느긋함이다. “아버지, 돌 굴러와요” 하는 나의 고향 충청도의 느긋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다. 조금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그곳 생활에서 가장 좋은 점이 여유였다. 모두 다 제각각 바쁜던 서울에서 나는 함께 조금했다. 그래서 인지도 초반에는 프라하의 여유로움이 답답했다. 그러나 어느새 물들여져서 시간 사이에도 엄연한 공간이 있을 수 있음을 알았다. 공간 사이에도 엄연한 시간이, 그것도 여유롭게 존재할 수 있음을 알았다. 기다리는 것을 배웠달까. 마음속의 여유를 얼마만큼 한국으로 가져가서 얼마 동안 남겨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래알만큼 가져가더라도 모래시계처럼 쓰고 싶어졌다.

지구는 왜 이렇게 큰 걸까요?

프라하로 떠나는 비행기에서 ‘자, 이제부터 오롯이 나 혼자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연고 없는 곳에서의 생활이 막연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다시 한번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곳에 두고 오는 소중한 사람들, 정든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였다.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깨지는 못했어도, 벽 앞에 사다리를 두고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마음을 나눴던 소중한 날들이 잊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별. 영어로 ‘farewell’. 눈물을 한 바가지 쏟으며 헤어지면서 나는 이 지구가 왜 이렇게 큰 건지 원망했다. 한 명 한 명 포옹할 때마다 지구가 배로 커졌다. 하지만 다시 만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둥근 지구를 감싸 안았다.

이커머스의 무한 가능성

지난 2월 열린 ‘제1회 U-Commerce Competition(이하 UCC)’에서 한국외대 G.S.F(Global Seller Five)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G+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상을 수상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커머스의 무한 가능성을 보여준 G.S.F팀과 G+팀 학생들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세계적인 셀러(Seller)가 되기를 꿈꾸며

G.S.F(Global Seller Five)팀은 우리 대학 GBT학부 17학번 동기인 정혜원·김연서·서혜원·정동혁·최효진 학생이 ‘전 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셀러(Seller)가 되어 보자!’는 의미를 담아 꾸린 팀이다.

“저희는 평소 전자상거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약 4개월의 실습 기간 동안 제품 리스팅, 마케팅, 판매 등 전자상거래의 모든 과정을 처음 시도하며 많은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이라는 좋은 결과와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었기에 저희 스스로도 자랑스럽습니다.”

G+팀은 ‘글로벌(Global)로 나아가서 글로벌 셀러(Global seller)

그 이상의 가치를 내자!’는 뜻을 지녔다. G+팀 류선경 학생은 “저희 팀원은 영어학, 교육학, Global Business Technology 등 모두 다른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글로벌 셀러로 함께 성장했다”고 말문을 연 뒤 말을 이었다.

“코로나19 시기에 맞는 트렌디한 상품을 선정하기 위해 국내 유명 중소기업을 직접 발굴했고, SNS, 아마존 PPC, 검색 광고 같은 다양한 마케팅 방법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수출을 이뤄냈습니다. 팀원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뒤에서 도와주신 전종근·이정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GBT학부에서 주최한 프로그램이었지만, 다른 과 학생인 저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덕분에 수상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G.S.F팀과 G+팀은 무엇보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괄목할 만한 성과로 눈길을 끌었다. 두 팀이 이번 대회에서 선보인 아이디어와 성과가 궁금했다.

“저희는 외부업체 ‘호탕감탕’의 핸드메이드 제작 제품인 마스크 스트랩을 시작으로 마스크 귀 보호대와 안대를 판매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상승률이 가장 높은 미국을 대상 국가로 선정하고, 미국 아마존의 기존 제품과 품질·디자인·구성 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집중적으로 마케팅했으며, 원가 경쟁력을 마련해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약 3개월 동안 팔로워 수는 1,300여 명이나 됐고,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2명과 광고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초기 매출 대비 65배 정도 상승한 약 980달러 매출을 이뤘습니다. 이후 저희가 판매했던 매출이 1월 한 달에만 3000달러를 넘고 3월에는 1만6,0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중소기업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G+팀 류선경 학생의 말이다. 이어 G.S.F팀 최효진 학생이 G.S.F팀의 아이디어와 성과에 대해 들려주었다.

“저희가 활동을 시작하기 전 우선순위로 생각한 것은 ‘경쟁력 있는 제품과 시장 선택’이었습니다. 팀원들과 다양한 제품군, 경쟁사 제품, 시장을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플랫폼은 미국 아마존, 제품군은 브랜드 애니메이션 완구, 제품은 ‘Tayo Mini Car 9종 세트’를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내세운 경쟁력은 미국에 처음 선보이는 신제품이자 기존에 판매하는 타요 제품과 다른 ‘Baby 타요’라는 새로운 디자인과 내구성 좋은 메탈 제품이라는 차별성, 9개 묶음 세트의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소비자의 관심 유도와 만족도를 높였고, 총 6가지의 내부 마케팅 실시로 판매 효율성이 높았으며, 판매 시작 60일 만에 매출이 약 760만원에 도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마존에서 ‘Amazon Choice’ 제품으로 선택됐을 때 무척 뿌듯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괄목할 만한 성과로 눈길

I am

두 팀에게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물었다. G+팀 류선경 학생은 호탕감탕 대표님을 만나 이야기한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호탕감탕 대표님을 직접 만나 어떤 제품을 얼마나 수출할지 이를 동안 이야기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당시 품목 선정부터 난관이었는데, 앉은 자리에서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서 다음날까지 추가 회의를 했습니다.”

G.S.F팀 김연서 학생은 Amazon Choice로 선정된 것과 직접 상품 FBA 패키징을 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Amazon Choice는 제품 페이지, 리뷰, 판매 및 내부 마케팅 성과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할 때 아마존에서 직접 선정해 주는 것입니다. 회의하던 도중 저희 제품 페이지에 Amazon Choice라는 제목을 확인하고 소리치며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저희가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패키징 구성부터 미국에 FBA* 제품 발송까지 해냈을 때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G.S.F팀과 G+팀 모두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학부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G.S.F팀 정동혁 학생은 GBT학부의 전

종근·이정 교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교수님들이 매주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문가에게 마케팅 전략, 키워드 분석 도구 등에 대한 강의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고, 직접 저희 팀의 진행 상태를 점검해 리스팅이나 판매 전략 부분에 대해 조언해주었습니다. 학교 대표로 선발된 이후에는 대회 준비 과정에서 PPT와 발표 대본, 강조점 등 세세한 부분까지 조언해주어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을 확인하고 보완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G+팀 류선경 학생 역시 GBT학부를 통해 적잖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 덕분에 이번 대회를 더욱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다.

“GBT학부 실습에 참여하면서 전자상거래 실무 전문가 특강을 들은 것이 가장 큰 도움이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른 주제의 특강을 들으며 UCC 대회에 도움되는 이론과 실무 내용을 배웠고, 학부에서 전문가와의 연락망 구축에 힘을 써준 덕분에 특강에서 배운 내용을 대회 준비 과정에 어렵지 않게 녹여냈습니다. 또한 학부 교수님들이 활동 내역과 성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꾸준히 해준 결과 팀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FBA: Fulfillment by Amazon

저마다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다

인터뷰 말미, 두 팀 학생들에게 앞으로의 계획과 꿈을 물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이커머스의 무한 가능성을 엿본 학생들은 이미 자신만의 꿈을 향해 달려갈 준비를 마친 듯 보였다. 먼저, G.S.F팀 정혜원 학생이 자신과 팀원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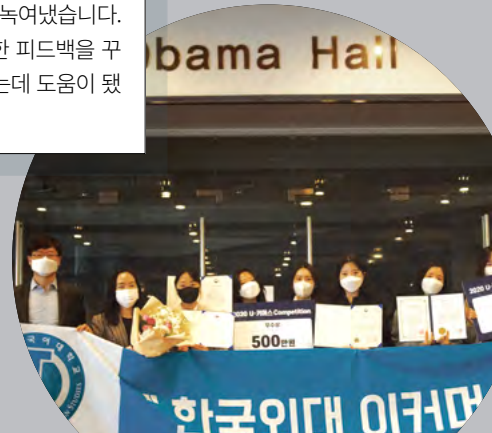
“저는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E-Commerce 활동을 시도할 것입니다. 해당 기술을 공부해 온라인 시장 내에서도 소비자와 셀러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시스템과 문화를 창조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서혜원 학우는 ‘아기상어’처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활보하는 셀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최효진 학우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 및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에 대해 지식을 쌓아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연서 학우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마존, 쿠팡처럼

세계 시장에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했고, 정동혁 학우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경력을 쌓은 후 회사를 차려서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의 계획과 꿈이 꼭 실현되리라 믿고, 미래 사회에 기여한 인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G+팀의 류선경 학생은 이번 실습과 대회 이후 글로벌 셀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앞으로 다른 분야에 취업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실습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을 활용해 개인적으로 글로벌 셀러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 실습을 통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발굴했듯이, 더 많은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GBT학부 교수님들의 세세하고 꾸준한 조언



HUFS에서 인공지능(AI)을 배워야 하는 이유

한국외대와 AI라니,
누군가 옆에서 “그건 썩 어울리는 조합이 아니군” 이라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외대야말로 지금 당장 AI로 힘차게 도움닫기하여
남들보다 더 빨리 미래로 달려야 한다.



이정
GBT학부 교수

왜 지금 우리가?

빅스비가 일상의 친구가 된 지도 수년이 됐다. 유튜브는 내가 요즘 어떤 알고리즘에 열광하는지 잘 알고 있고, 넷플릭스는 한 술 더 떠 내가 어떤 장면에서 정지와 반복을 누르는지 살펴본 다음 그 장면과 유사한 썸네일로 즉석에서 바꾸어 다 른 영상을 보여준다. 어찌 보면 무서운 세상이다.

AI를 이해하는 것은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 것과 비슷하다.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는 다들 뭔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마음으로 구형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까지 따로 운영했지만,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스마트폰으로 치킨 배달에서부터 출석 체크까지 해결한다. 더 이상 AI는 나와 분리된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어느새 내 삶의 소소한 일상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됐다.

어떻게 AI를 이해해야 할까?

기술의 발달은 역으로 기술의 숨김을 가능하게 한다. AI 기술은 그 결과만 보여줄 뿐 복잡한 중간 과정은 그것을 원하는 소비자가 없기 때문에 속으로 삼킨다. 그렇다면 소비자이자 적극 활용자가 될 학생들은 어떻게 AI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AI에 대한 이해는 데이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데이터를 넣고, 기계에게 학습시키고, 그 결과를 보자. 배움의 패러다임을 바꿔 결과를 먼저 보고 역으로 추론하는 훈련을 하자. 어떤 데이터를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직접, 여러 번 경험해 보자. 선형대수를 배우지 않았어도, 역전파를 직접 계산할 수는 없어도, 누구나 데이터는 넣어볼 수 있다. 시리의 뇌 구조(알고리즘)는 몰라도, 시리와 대화를 많이 하면 시리를 이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시리를 조금 더 좋게 변화시킬 창의적 아이디어는 낼 수 있지 않을까.

만약 'HUFS의 정체성은 인문학 아닌가'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AI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인문학이라 답하겠다. 나는 인간에 가까워지겠다고 노골적으로 외치는 기계라니, AI를 이해하는 것 이야말로 인문학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니까 올 가을에는 <HUFS AI 융합전공>으로!

HUFS는 2021학년도 가을에 Business & AI, Language & AI, Software & AI 세 개의 트랙을 갖고 있는 거대 AI 융합전공을 출범시킨다. 이는 기존 언어와공학, 융복합소프트웨어, AI융합전공으로 분산돼 있던 AI 관련 융합전공을 하나의 커다란 플랫폼으로 통합해 체계적인 교육을 하려는 외대의 비전이자 노력이다. 통합해 교육할 때 교수는 더 넓어진 땅에서 자신만의 연구 영역을 확장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권은 넓어진다.

그중 이번에 신설되는 Business & AI 트랙은 기존 경영학 위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술을 특화시켜 콘텐츠비즈니스, 금융, 마케팅 등으로 영역을 넓힌다. 특별한 수학 통계 기초 지식이 없는 학생도 소비자와 기업, 시장에 대한 너른 통찰력을 갖추고 있다면 그 힘에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좀더 깊고 단단하게 시장과 기업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이 모여 만든 기업과 시장을 이해하는 학문이 경영학이라면, 그 이해를 더 객관적이고 증명 가능하게 도와주는 데이터와 AI 기술을 HUFS AI 융합전공의 Business & AI 트랙에서 배워 보자.

H

U

HUFS NEWS

[HUFS Topics](#)

[HUFS Today](#)

[HUFS Academies](#)

[HUFS Professors](#)

[HUFS Institutes](#)

[HUFS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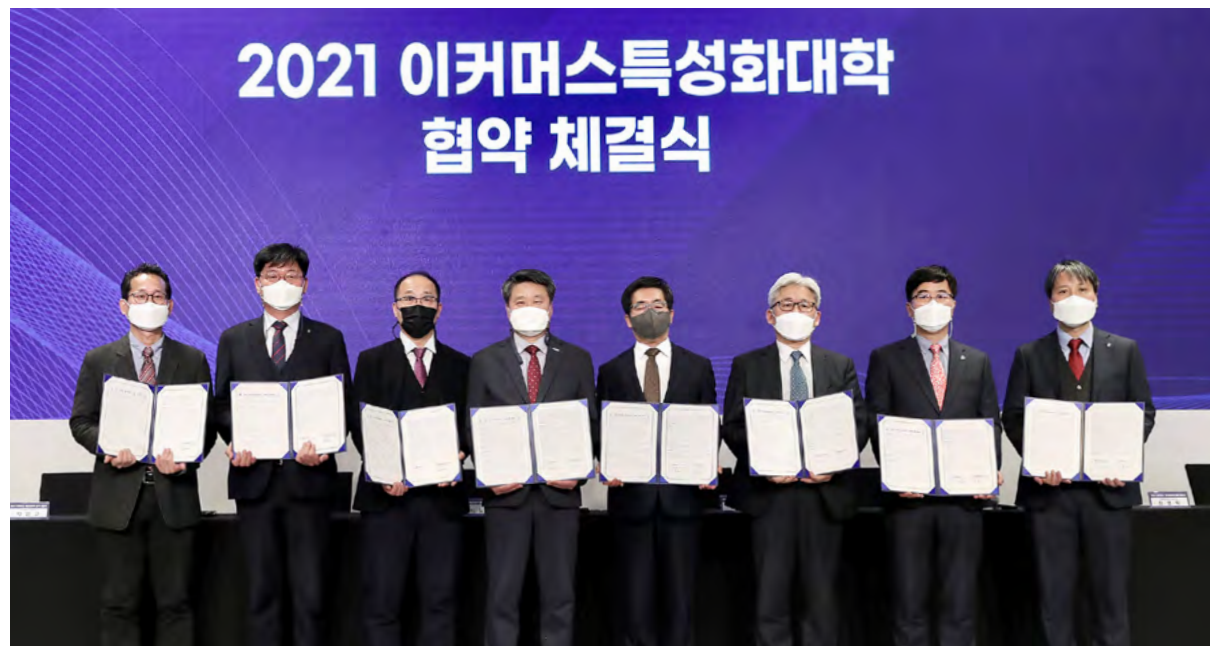
[CUFS News](#)

F

S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2021년 이커머스특성화대학 협약 체결

우리 대학은 2월 5일(금)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과 '2021 이커머스특성화대학' 협약을 체결했다. 이커머스특성화대학은 온라인 수출 전문기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대학간 협력 사업이다. 우리 대학을 포함해 7개 대학이 2021년도 이커머스특성화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캠퍼스 신정환 부총장이 참석했다. 협약 체결식과 함께 진행된 '제1회 U-Commerce Competition'에서 우리 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G.S.F(Global Seller Five)팀(정혜원·김연서·서혜원·정동혁·최효진(GBT 17))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G+팀(안유진·정유진(영어 17), 류선경(GBT 18), 유소정(영어교육 19))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융합인재대학, 한국무역협회와 산학협력 MOU 체결

우리 대학 융합인재대학추진위원회(위원장 최진영)는 1월 7일(목)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콘텐츠 제작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융합인재대학은 영상 촬영과 편집이 가능한 대학생을 추천하고 '대학생 콘텐츠 크루'를 구성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다. 한국무역협회는 기업간(B2B) 온라인 거래 알선 플랫폼 트레이드코리아(tradeKorea)와 해외 직판 플랫폼 케이몰24(Kmall24) 입점 기업 60개를 대상으로 제품 홍보 영상 같은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우리 대학 최진영 위원장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되어 의미가 있으며, 융합인재대학 출범과 때를 같이 하여 산학협력을 수행하게 되어 우수한 학생들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김현철 글로벌마케팅본부장은 "기업에게는 콘텐츠 제작 지원을, 청년 인력에게는 실무 경험을, 협회와 대학에게는 인재 발굴과 육성의 기회를 제공해 우리나라의 온라인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램지 테미로프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 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

우리 대학은 2월 18일(목) 램지 테미로프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에게 정치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램지 대사는 2014년 한국에 부임한 이래 7년 동안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우호 증진 및 협력에 크게 기여했다. 2015년 우리 대학 국제지역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시작했으며, 6년 만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아제르바이잔의 다문화주의 경험과 서구와의 차이점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램지 대사는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그 정책에도 시사점을 주며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학위 논문을 썼다. 램지 대사는 “대사로서 첫 부임지인 한국에서 의미 있는 박사 학위를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학술 협력과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어느 위치에서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 김인철 총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램지 대사는 오랜 노력 끝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면서 “자랑스러운 13만 외대 동문의 일원으로 서 세계 어디에서든지 세계 평화와 우호 증진을 위해 큰 활약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8명 배출

우리 대학은 지난해 11월 29일(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2020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51명 중 8명(일반외교 6명, 지역외교(중남미, 러시아·CIS) 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일반외교 분야는 1,166명이 응시해 제1차 시험(공직적격성평가, 선택형), 제2차 시험(전문과목 평가, 논문형), 제3차 시험(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47명을 선발했는데, 우리 대학에서 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지역외교 분야는 68명이 응시해 제1차 시험(공직적격성평가, 선택형), 제2차 시험(서류전형), 제3차 시험(면접)을 거쳐 4명이 최종 합격했는데, 우리 대학에서 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히 외교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한 Language & Diplomacy학부에서 처음으로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명실상부 외교사관학교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진로취업지원센터 이기현 센터장은 “우리 대학은 외교관 배출을 위해 열람실 제공, 다양한 특강 개최, 전담 지도교수 배정, 모의고사 및 모의면접 실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인재개발원 설립으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단, 헌판식

우리 대학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단(단장 김낙현)은 지난해 12월 3일(목) 글로벌캠퍼스 공학관에서 헌판식을 가졌다. 헌판식 행사는 코로나19로 주관기관과 협력기관 인사를 초청하지 않고 김인철 총장, 신정환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강준우 공과대학장 등 교내 관계자만 참석해 진행했다.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SW전문·융합인력 양성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40여 개 대학이 참여한다. 우리 대학은 2019년 하반기 사업에 선정됐고, 'AI 시대를 개척하는 글로벌 융합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분야 융합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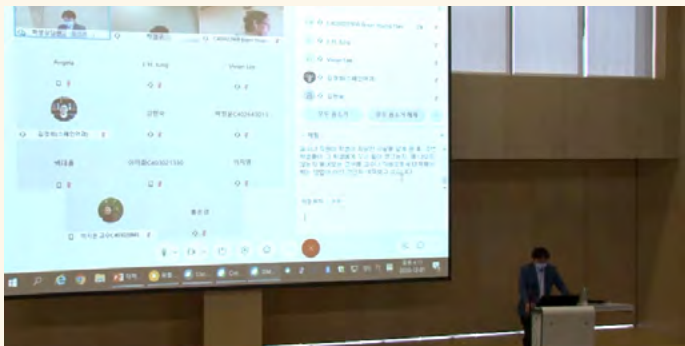
이종원 행정지원처 건설기획팀 과장, 대학 건물 전기에너지 절감 방안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우리 대학 행정지원처 건설기획팀 이종원 과장이 SCI 저널 〈Sustainability〉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했다. 해당 논문은 대학 건물의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고자 강의실, 기숙사, 지하 주차장 등 학교 시설에 인체 감지 센서와 객실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절감되는 전기에너지 양을 측정·비교한 결과물이다. 그동안 실제로 절감되는 전기에너지 양에 대한 자료는 전무했는데, 실험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절감되는 전기에너지 양을 정량화해 대학 건물의 전기에너지 절감 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문화교육원, '제8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우리 대학 연구산학협력단 다문화교육원(원장 허웅)과 충청남도교육청이 주관하고 교육부, LG연암문화재단이 주최한 '제8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지난해 12월 5일(토) 우리 대학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개최됐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시도교육청 예선을 거친 51명의 초·중등 다문화 학생들이 참가해 나의 꿈, 학교 생활 등에 대해 우리말과 자신의 부모 나라 언어로 발표했으며, 심사위원 및 관계자만 모여 학생들의 발표를 실시간으로 심사했다. 참가한 학생에게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및 한국외대 총장상, LG연암문화재단 이사장상 등 특별상이 수여됐다.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 '교직원을 위한 위기학생의 이해와 개입방안' 특강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 학생상담센터(센터장 전재은)는 지난해 12월 1일(화)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와 글로벌캠퍼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위기학생의 이해와 개입방안'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최근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를 경험하는 학생들의 정신 건강 관리와 예방의 필요성이 증가해 이를 위해 위기학생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위기 개입방안을 안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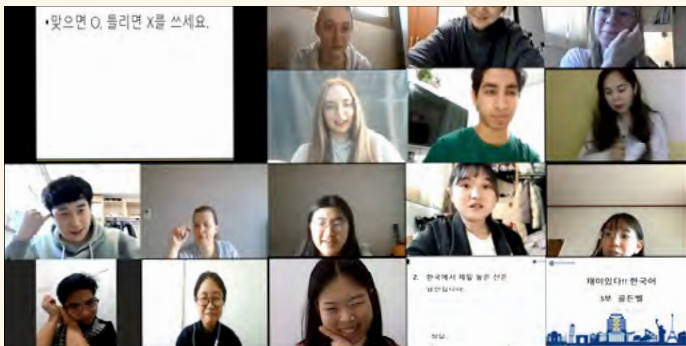
우리 대학 학부 과정 재학생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KMAC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우리 대학 학부 과정 서용원(경영 18)·이수현(경영 19)·정드림(통계 17)·정수연(경제 18) 학생이 지난해 12월 8일(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제16회 경영혁신 연구논문 및 사례연구 대학(원)생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70여 편의 논문이 출품된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우리 대학 학생들은 약 5개월간 식품 건강과 FOP(Front-Of-Package)가 브랜드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으며, 국내외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학술적, 실무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특히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대학원 등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과 경쟁한 결과이기에 더욱 빛을 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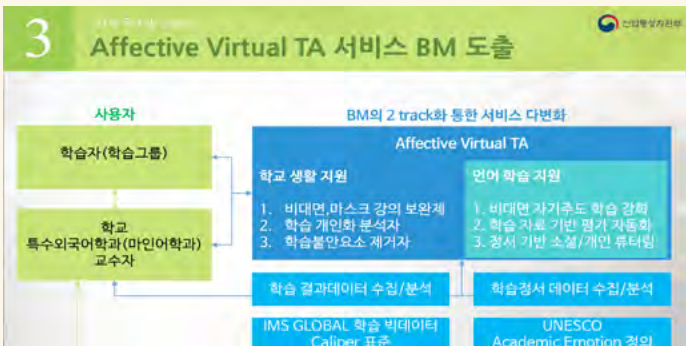
김인철 총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 동참

우리 대학 김인철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1월 20일(수)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노동자(환경미화직, 보건의료직, 운전직, 보안직)에게 감사와 응원을 전하는 것이다. 김인철 총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필수노동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 대학들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동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전했다.



한국어문화교육원, 온라인 특별 한국어·문화행사

우리 대학 한국어문화교육원(원장 김의수)은 1월 29일(금)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는 온택트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특별 한국어·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심신에 지친 한국어문화교육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기존 교재를 통한 한국어 학습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한국어 및 문화 체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학생과 강사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온라인(zoom)으로 진행됐고, 학생들은 한국어 능력에 따른 등급별 한국어 대회(단어 게임, 삼행시 짓기, 한국문화 골든벨 등)와 특별 활동(전통놀이 체험, 장기자랑, 포스터 제작 등)을 경험했다.



지식출판콘텐츠원, 산업자원통상부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 2단계 연구과제 최종 선정

우리 대학 지식출판콘텐츠원(원장 윤성우)은 2월 9일(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주한 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기술개발) 2단계(2021~2022년)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연구비 10억원을 지원받아 인도네시아어 교육용 인공지능 튜터 데이터를 가공 및 수집하는 연구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인공지능 튜터 결과물에 대한 지분을 획득하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미래인재양성 위한 외국어 교육용 딥러닝 기반 Affective Virtual TA 서비스 기술 개발'은 현재 인도네시아 교육 기업에 시범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제7회 YTN-한국외대 비대면 초등학생 영어토론대회 성료

우리 대학과 24시간 뉴스채널 YTN이 주최한 제7회 초등학생 영어토론대회가 2월 20(토)~21(일) 비대면 온라인 대회로 개최됐다. 전국의 52팀이 참가했으며, 국제 리그 31팀과 국내 리그 21팀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은 사회 소수자들의 주장, 국가간 내정 간섭의 제한, 친환경 기술, SNS의 장단점, 형사 범죄자의 인권 등 다양한 사회 현안을 주제로 다뤄졌으며, 토론의 기초를 닦고 설득력 있는 영어를 구사하게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Superb팀의 영에는 국제 리그 DeVengers(우정민·정지민·진하은·김보민)팀과 국내 리그 Sliced Milk(정원석·정예은·신도윤·황지호)팀이 차지했다.



한국외대, 2021년 교육부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사업 선정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지원 사업에 선정돼 3년간 최대 1억2천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사업은 대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 탐색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대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경로 구축을 지원한다. 우리 대학은 'HUFS 진로탐색 도전학기제(H-Up)' 프로그램으로 해외 취·창업 및 해외 지역 전문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 공헌, 문화 콘텐츠 발굴 및 창작 프로젝트, 전공 심화, 창업, 융·복합 학제, 자율형 등의 유형으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외대-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 터키 정부 인턴 파견 오리엔테이션

우리 대학과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원장 오종진)은 2월 19일(금) 터키 정부 인턴 파견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2019년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의 후원으로 맺은 우리 대학과 주한 터키대사관의 터키 정부 인턴 파견 프로그램(Turkish Korean Internship Program: TKIP)의 일환으로 파견되는 이번 인턴십은 한국의 첫 터키 정부 인턴 파견 프로그램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터키 정부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 4명이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받았으며, 이 학생들은 다양한 터키 정부 기관에 배속돼 5개월간 인턴 근무를 할 예정이다.



2021-1학기 신입교원 임명장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

우리 대학은 지난 3월 2일(화) 서울캠퍼스에서 2021학년도 제1학기 신입교원 임명장 수여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김종철 이사장은 2021학년도 제1학기 신규임용 교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앞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 나아가 우리 대학 발전에 이바지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김인철 총장, 조성은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김용애 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이 배석했다.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 사업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공동 국제 학술회의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의 HK+ 국가전략 사업단(단장 강준영)은 지난해 12월 1일(화) 미네르바 콤플렉스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공동으로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한 이날 학술회의는 '한반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국적 협력과 소통'을 주제로 1부-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한 협력 모색, 2부-한반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국적 협력 모색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국제 학술회의의 모든 과정은 사업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향후 사업단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AKleKYTIGCD5a1I4dQsu4Q>)에 공개된다.



HK+ 국가전략 사업단,

HK+(인문한국플러스) 연합 학술대회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의 HK+ 국가전략 사업단(단장 강준영)은 지난해 12월 15일(화) 국제지역대학원 애경홀에서 HK+(인문한국플러스) 연합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며 개최된 학술대회는 개막식, 연구논문 발표 및 토론, 라운드테이블, 폐막식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시아와 북방, 문화접점의 확산: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를 주제로 코로나19로 어려운



학계 여건 속에서 공동연구의 기회를 함양하고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연구의 상승 효과를 모색하는 장이었다.

HK+ 국가전략 사업단, 디지털타임스와 MOU 체결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의 HK+ 국가전략 사업단(단장 강준영)은 1월 12일(화) 대학본부에서 디지털타임스(대표이사 박학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속적 교류 협력을 통해 '북방' 관련 전반적 이슈에 대해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대학 김인철 총장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조인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으며, 향후 두 기관의 협업 결과는 디지털타임스 유튜브 채널 '디따'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단의 아젠다는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북방 문화 접점 확산과 문화 허브의 구축'이다.



HK+ 국가전략 사업단, 2월 정기 콜로кви엄

우리 대학 국제지역연구센터의 HK+ 국가전략 사업단(단장 강준영)은 2월 25일(목)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2월 정기 콜로кви엄을 개최했다.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콜로кви엄은 사전 신청자가 온라인(Zoom)을 통해 접속했고, 행사장에는 사회자를 비롯한 소수 인원만 참석했다. 강준영 단장의 사회로 진행된 콜로кви엄에서 발제를 맡은 우준모 선문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오래된 낯선 이웃, 러시아 룩아보기'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토론과 질의·응답이 전개됐다.



3월 콜로кви엄에서는 2021년 한국정치학회장인 고려대학교 김남국 교수가 강연할 예정이다.

러시아연구소

HK+ 연구사업단, 온라인 학술회의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 HK+ 연구사업단은 지난해 12월 5일(토) 인문한국 프로젝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사회과학과 어문학 분과로 구성된 이번 학술회의는 사업단 소속 교수 8명이 '러시아의 타자들: 모방과 변용의 역사'라는 대주제 아래 러시아의 역사, 정치, 문화, 문학, 언어 영역에 나타난 타자성에 대해 발표했다. 러시아로 유입된 외래적 요소와 그것이 러시아 문화와 삶에 미친 영향, 그에 대한 갈등과 저항, 러시아 문화에 자리잡게 된 과정과 방식, 비러시아 토착 민족의 측면에서 본 러시아 문화의 영향 등을 논의했다.



'러시아문학, 클래식으로 만나다' 인문강좌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는 지난해 11월 13일(금)~12월 18일(금) 6주에 걸쳐 매주 금요일 서울캠퍼스에 위치한 카페 '이문일공철'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러시아문학, 클래식으로 만나다' 인문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인문강좌는 근대 이후 유럽 사람들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양한 문학작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던 모습을 상상해보자는 취지에



서 비롯됐다. 러시아연구소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푸쉬킨,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등을 중심으로 6개 테마를 정해 청중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Russia Report 연례 세미나 ‘팬데믹 시대: 2021 러시아를 전망한다’

우리 대학 러시아연구소(소장 표상용)는 1월 15일(금) 연례 보고서 <Russia Report> 발행의 일환으로 연례 세미나 ‘팬데믹 시대: 2021 러시아를 전망한다’를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러시아연구소가 매년 1월에 여는 정기 학술행사로, 온라인(zoom) 형식으로 진행했음에도 50여 명의 러시아 전문가와 학문 후속세대가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표상용 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참석자들은 지난 한 해 러시아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을 짚어보고 2021년을 전망했다.



인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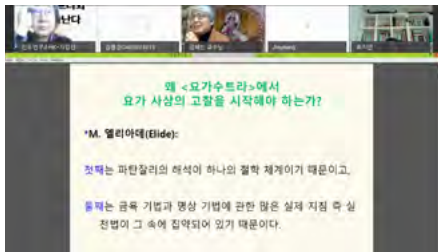
HK+ 사업단, 한국인도학회 공동 ‘한국인도학회 제49차 정기학술대회’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의 HK+ 사업단은 지난해 12월 12일(토) 사단법인 한국인도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인도학회 제49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인도학회는 국내 인도학 연구 발전과 관련 학

자의 학술 교류를 위해 해마다 두 차례 열리는 학술대회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도시화와 인도 사회의 변동’ 및 ‘인도 정치·여성·법’이라는 두 개의 패널로 모두 5개의 연구 주제가 발표됐다. 급변하는 인도 사회의 변동과 그 요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사업단의 아젠다 ‘인도의 대전환과 인도학의 한국적 재해석’의 성과를 도출하는 장이었다.

HK+ 사업단, 제26회 콜로퀴엄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의 HK+ 사업단은 지난해 12월 30일(수)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김재민 연구교수를 초청해 제26회 콜로퀴엄을 개최했다. 현대요가와 하타요가 분야를 대표하는 소장학자인 김재민 박사는 요가수트라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개괄하며 20세기 인도의 종교가인 비베카난다가 요가수트라를 전통적인 상키야·요가 철학에서 해석하기보다 베단타 사상과 당시 서구 신비주의와 과학을 기반으로 재해석했음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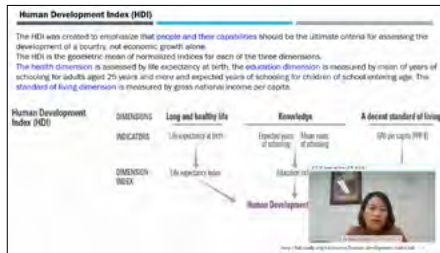
HK+ 사업단, 인도지역학 Winter School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의 HK+ 사업단은 1월 11일(월)~12일(화) 국제지역대학원과 공동으로 인도지역학 Winter School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인도지역학 Winter School은 ‘신남방정책과 한-인도 관계’를 주제로 신남방정책에 대한 기본적 소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측면에서의 한-인도 관계를 다뤘으며, 인도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인도에 대한 기본적 지식 함양과 더불어 지역학에 대한 관심 확대에 이어서하는데 기여했다.

HK+ 사업단, 제27회 콜로퀴엄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소장 김찬완)의 HK+ 사업단은 1월 28일(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평가연구부장 김순애 박사를 초청해 제27회 콜로퀴엄을 개최했다. 김순애 박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국제백신연구소의 연구과학자로서 전염병 분야를 연구하고, 현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평가연구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번 강의에서 인도의 보건 의료 체계에 대한 기본적 내용과 지표를 발표문을 통해 제시했다. 또한 코로나19 전후의 인도 보건 의료 목표의 변화, 인도 공중보건 체계의 긍정적 변화를 언급하면서 케랄라와 서벵갈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인도 공중보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 해외 석학 초청 세미나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단장 전용갑)은 지난해 12월 14일(월)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페루 국립 산마르코스대학교 로돌포 산체스 가라파 명예교수를 초청해 해외 석학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용갑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산체스 교수는 ‘안데스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산체스 교수는



“우주의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고 강조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을 강조한 안데스의 세계관을 소개했다. 산체스 교수의 강연은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라틴아메리카를 문명 전환의 플랫폼으로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에 큰 도움을 주었다.

HK+ 사업단 지역인문학센터 <빠차마마>, 인문학 강좌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단장 전용갑)의 지역인문학센터 <빠차마마>는 지난해 10~12월까지 수원 영통도서관에서 ‘찬란한 고대문명: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의 높은 행복 지수 비결’, 용인시 기흥노인복지관에서 ‘남만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란 주제로 인문학 강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수강생을 제한하거나, 온라인 정기 강좌로 진행했다. 우리에게 생소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사회, 문화, 음식, 생활방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HK+ 사업단, 아시아·라틴아메리카·유럽 3개 대륙 비대면 국제 학술대회

우리 대학 중남미연구소 HK+ 사업단(단장 전용갑)은 2월 24일(수)~25일(목)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지역의 생태 문명을 위한 경험과 실천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비대면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외대,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고 한국외대 EU연구소, 국립생태원, 스페인 알칼라 데 에나레스 대학



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다.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 3개 대륙 13개국 90여 명의 학자들이 18개 세션에 참가해 환경, 생태 문제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근본적 대안을 모색했다.

EU연구소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 공동 국제 학술대회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지난해 12월 4일(금) 브뤼셀 주재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와 공동으로 2020년도 겨울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과 EU 지역의 문화·교육·외교 관계를 살펴보고, 새로운 미래 협력 분야를 모색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코로나19 심화로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하이브리드 학술대회 형태로 진행했다. 우리 대학 김인철 총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과 유럽의 문화와 교육 분야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번 학술대회가 국내 유럽 지역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전라북도 공동 국제 학술회의 ‘세계화와 글로벌 지방자치 재조명’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지난해 12월 17일(목)~18일(금) 전라북도 및 교내외 학술기관(인도연구소 HK+ 사업단,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연구소, 극지연구소, Hufs-가뮈이스 포르투갈어센터,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 한국유럽학회 및 한국태국학회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 시대의 지방자치단체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모두 12개 패널이 참가해 국제 문화 교류 사업과 협력 방안 등 지자체의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제주평화연구원과 교류 협정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지난 2월 16일(화) 제주평화연구원과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교류 협정을 통해 두 기관은 상호 교류 협력 증진 및 발전을 도모하고, 학술행사 개최 및 연구 프로젝트 수행에 협력해 향후 학술·연구정보 교류 및 공동 학술회의 개최, 연구 인력 교류 및 시설 공동 활용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URAXESS KOREA와 인턴 파견 협정

우리 대학 EU연구소(소장 김봉철)는 2월 25일(목) EURAXESS KOREA(대표 Tomasz Wierzbowski)와 인턴십 프로그램 관련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유럽연합(EU)의 산하 기구인 EURAXESS는 40개국의 유럽 국가에서 260개 센터를 운영하며, 유럽에서 연구 경력을 쌓을 수 있게 연구자에게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 우리 대학과 EURAXESS Korea는 인턴 파견 프로그램을 통해 학계·동계 방학 중 각 1명, 학기 중 각 1명씩 재학생을 선발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Brief News

HUFS Academies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

주한 터키대사관 및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등 학술 교류 및 협력 확대

우리 대학에 설립된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원장 오종진)에는 지난해 12월 2일(수)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김중도 소장이 방문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12월 3일(목)에는 주한 터키대사관 유니르 오우즈 경제 참사관과 알프 외제킨 정치 참사관, 술레이만 사히 참사관 등이 방문했다. 유누스엠레 인스티튜트 터키문화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금 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 주한 터키대사관 및 명지대학교 중동문제연구소 등과 학술 교류 및 협력을 더욱 확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극지연구센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공동 '2020 북극협력주간' 개최
우리 대학 극지연구센터(센터장 최우익)는 지난해 12월 7일(월)~11일(금)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2020 북극협력주간'을 진행했다. 극지연구센터는 협력 기관으로 참가했으며, 12월 8일(화) 개최한 '북극 인문사회연구 세미나: 국제협력 공간으로서의 북극권' 학술대회에서 김봉철 국제학부 교수가 '유럽의 북극 지역 갈등과 해결을 위한 정책 그리고 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아랍어과

한국이슬람학회 추계 학술대회

우리 대학 아랍어과 윤은경 교수는 지난해 12월 5일(토) 교수회관 강연실과 세미나실에서 한국연구재단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후원으로 한국이슬람학회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엄격한 방역수칙을 지키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이슬람 내부 갈등과 문화유산: 문화재 파괴와 보존'을 주제로 모두 4개 분과로 나눠 13개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작년 초 한국이슬람학회 회장에 취임했으며, 임기는 올해 말까지 2년이다.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사업단, 온라인 기업설명회

우리 대학 중앙아시아연구소 신흥지역사업단(단장 오종진)은 지난해 12월 18일(금) 전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공동으로 온라인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개최한 이번 설명회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새로운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는 신흥 지역 국가(터키, 몽골 등)의 최근 경제 현황과 시장 동향을 소개하고, 코로나19로 악화된 전라북도 지역의 기업 환경을 해외의 다른 지역에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LD(Language and Diplomacy)학부

김영환 교수 논문, 교육부 주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선정

우리 대학 LD(Language and Diplomacy)학부 김영환 교수의 논문이 지난해 12월 17일(목) 교육부 주관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됐다. 김영환 교수는 한국형 개발 협력 모델인 새마을 사업을 탄자니아와 방글라데시에 적용한 사례를 분석해 한국형 개발 협력 모델을 이론적으로 정립했으며, 객관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적으로 국제 개발 협력 모델의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 논문은 개발학 최고 권위지 <World Development>에 게재됐다.



장모네 EU센터

제주평화연구원 공동 학술회의

우리 대학 장모네 EU센터(소장 김시흥)는 1월 8일(금) 제주평화연구원(원장 한인택), 한국유럽학회(회장 이무성)와 공동으로 '지역통합과 다자주의'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 학술회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에 즈음해 안보 및 통상 환경의 변화를 살피면서 '지역통합과 다자주의'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앞으로 진행될 상황을 점검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발전을 구축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데 주력했다.



Brief News

HUFS Professors

박주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 취임

우리 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박주연 교수가 지난해 12월 4일(금)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주연 교수는 한국미디어경영학회 부회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주연 교수는 2년간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최종찬 인도어과 교수, 한국인도학회 회장 취임

우리 대학 인도어과 최종찬 교수가 지난해 12월 12일(토) 한국인도학회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최종찬 교수는 델리대학교 언어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우리 대학 인도연구소 소장, 사이버한국외대 초대 학장, 우리 대학 부총장을 역임했다. 1991년 창립된 한국인도학회는 인도 지역에 대한 학문적 차원의 지역 연구와 인도 지역의 동향에 대한 시사 분석을 심층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일반에게 보급함으로써 인도 지역 연구 발전과 보급 및 한국-인도간 평화적 상호 교류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나송주 스페인어과 교수, 한국동서비교문화학회 회장 취임

우리 대학 스페인어과 나송주 교수가 한국동서비교문화학회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올 1월 1일(금)부터 2년이다. 나송주 교수는 스페인 마드리드 콤피루멘세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스페인어문화회 상임이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 홍보실장을 역임했다. 1997년 창립된 한국동서비교문화학회는 동서양의 문화와 사상의 비교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됐고, 세계 각국의 비교문화회와의 교류와 학술지 발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기환 프랑스어학부 교수, 한국불어불문학회 학회장 취임

우리 대학 프랑스어학부 유기환 교수가 1월 1일(금) 한국불어불문학회 제56대 학회장으로 취임했으며, 임기는 1년이다. 유기환 교수는 우리 대학 불어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8대학교에서 불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알베르 카뮈, 조르주 바타이유, 롤랑 바르트 등 프랑스 인문학자 관련 저서와 역서를 14권 출판했으며, 프랑스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65년에 창립된 한국불어불문학회는 불어불문학 분야 학회 중 가장 유서 깊은 학회로 불어불문학 관련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학술상 시상, 사전 편찬 등을 주관한다.



이준규 교육대학원 교수, 한국응용언어학회 회장 취임

우리 대학 교육대학원 이준규 교수가 한국응용언어학회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올 1월 1일(금)부터 2년이다. 이준규 교수는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제2언어 습득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우리 대학 외국어교육연구소 소장, 테솔전문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다. 1978년 창립된 한국응용언어학회는 응용언어학 분야에서 가장 전통 있는 학술 단체로 언어의 다양한 응용 분야(언어습득 및 평가, 뇌과학, 언어공학 등에 관해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그 이론과 결과를 일반에게 보급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송연석 통번역대학원 교수,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우리 대학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송연석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제 저명 학술지(A&HCI) <BABEL-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LATION>에 국내 언론사들의 외신 인용 보도에 나타나는 오역 및 왜곡 양상을 분석한 논문을 출판했다. 송연석 교수는 이 연구에서 언론사들이 정치적 이해 관계 및 이데올로기에 따라 동일한 표현을 어떻게 다르게 번역해 여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사례 분석으로 조망하고, 국내 언론계에 요구되는 번역 윤리에 대해 논의했다. 이 연구는 특히 언론사의 오역 및 왜곡 관행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기계 번역의 한계를 증명하는지 역대 여러 정부에 걸친 실사례를 통해 논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HUFS Professors



윤선경 영어통번역학부 교수,
국제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우리 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윤선경 교수는 국제 저명 학술지 <Journal of Gender Studies>에 2016년 맨부커상 수상작인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의 「The Vegetarian」에 관한 논문을 출판했다. 윤선경 교수의 논문은 많은 비평가들 사이에서 오역 논쟁을 일으킨 「The Vegetarian」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한다. 이번 논문은 번역은 원본의 베껴 쓰기가 아니라 창조적 글쓰기임을, 나아가 정치적 글쓰기로서 가부장제에 저항해 페미니즘에 공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투 운동이 활발한 우리 사회에서 번역과 젠더 정치학을 연결시켜 번역의 지평을 넓히고, 원본과 번역,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서열을 무너뜨리는 전복적 번역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교수 출간

박용구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고케쓰아쓰시 공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무시효성」 출간

우리 대학 융합일본지역학부 박용구 교수가 일본, 대만의 연구자들과 공동 집필한 신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무시효성」을 출간했다. 2부로 구성된 이 책은 한일 갈등의 정점에 자리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1부에서는 위안부 운동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이념으로서 국제성과 무시효성을 제안하고, 제2부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국제성과 무시효성을 전파해나가는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환기시킨다.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 출판됐고, 조만간 중국어 판도 출간될 예정이다.



윤대식 미네르바교양대학 교수,
「유인석 평전, 자존(自尊)의 보수주의자」 출간

우리 대학 미네르바교양대학 윤대식 교수가 저술한 「유인석 평전, 자존(自尊)의 보수주의자」가 출간됐다. 이 평전은 2015년 교육부 재원으로 한 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추진한 한국학총서사업의 최종 결과물이다. 정치자성이라는 프레임으로 유인석의 정신의 삶과 활동의 삶을 재구성하고 그 정신과 활동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춰 위정척사의 보수응변이 중화의 에센스에 대한 자주적 해석과 민족의 관념적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도덕 문명 구축을 지향했던 자존의 보수주의였음을 규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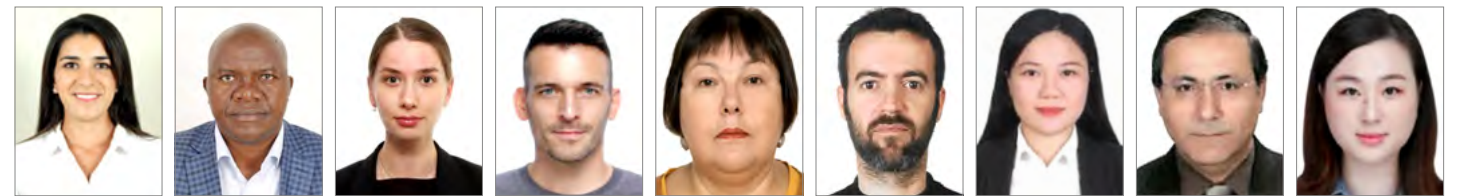


New Professors

〈신임 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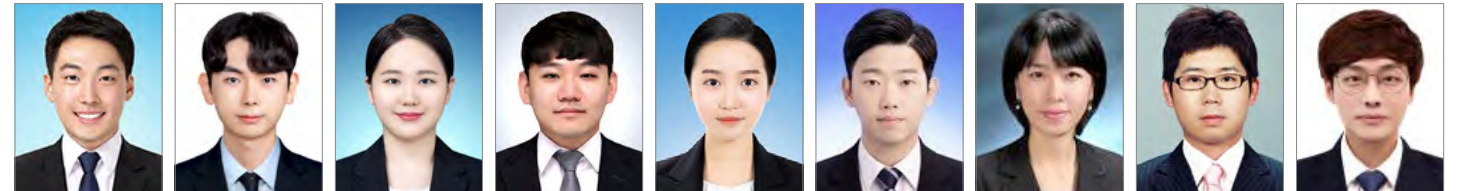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신임 직원〉



19 20 21 22 23 24 25 26 27

- 01 **김선영**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 02 **최형용**
경영대학 경영학부
- 03 **장한소리**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 04 **정기웅**
국제지역연구센터
- 05 **김용식**
경상대학 국제금융학과
- 06 **윤승민**
통번역대학 일본어통번역학과
- 07 **Samuele Fioravanti**
통번역대학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 08 **Wu Wenshan**
통번역대학 중국어통번역학과
- 09 **Zulfati Izazi Zulkifli**
통번역대학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 10 **Mariene de Fatima Cordeiro de Queiroga**
국제지역대학 브라질학과
- 11 **James Nyachae Michira**
국제지역대학 아프리카학과
- 12 **Elizaveta Bladimirovna Litovskaia**
국제지역대학 러시아학과
- 13 **James Iain Finnie**
외국어교육센터(글로벌)
- 14 **Olga Vitalyevna Khorokhordina**
서양어대학 노어과
- 15 **Francisco Gomez Matos**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 16 **Vu Lan Huong**
아시아언어문화대학 베트남어과
- 17 **Nadir Engin Uzun**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 18 **Yan Huijuan**
사범대학 중국어교육과

- 19 **김재진**
학사종합지원센터(서울)
- 20 **박성조**
학생지원팀(서울) 겸 사회봉사센터(서울)
- 21 **박혜원**
데이터센터 겸 지식출판콘텐츠팀
- 22 **유병호**
대학원 사무2팀 경영대학원
- 23 **이은영**
진로취업지원센터(서울) 겸 공공인재개발원운영팀
- 24 **김재환**
시설관리팀(서울)
- 25 **김민경**
입학총괄팀
- 26 **김우중**
입학총괄팀
- 27 **맹민호**
입학총괄팀

외국어연수평가원

2021년 상반기 외국어교육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21년 상반기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2.01 ~ 06.18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07.05 ~ 07.30
야간과정	야간회화과정	3월, 9월,	03.23 ~ 05.27
주말과정	주말특별과정	3월, 8월	03.06 ~ 06.05

외국어연수평가원은 기초부터 고급까지 실용 외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다양한 외국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언어는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독일어, 마인어, 아랍어 등으로, 언어별 적정 인원 모집시 개강한다. 주요 교육 과정으로는 말하기·쓰기·듣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단기간 실용 회화 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야간과정,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말에 진행되는 주말특별과정, 여름과 겨울방학에 단기과정으로 진행되는 방학특별과정 등이 있다.

문의 02-2173-2515, 2524, 252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기관/기업체 위탁 교육과정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연간 40개 이상의 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과 소속 임직원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 과정은 위탁 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설하며, 의뢰 기관의 교육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위탁 기관의 특성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 교육과정으로 설계 및 제공된다. 현재까지 인사혁신처,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화재에니카손사, 롯데인재개발원, 한화그룹, KEB하나은행, 현대중공업 등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공기업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그룹과 기업체 등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과정 이수 후 교육성과 및 만족도 면에서 높은 평가로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문의 02-2173-2515 **홈페이지** <http://flttc.hufs.ac.kr>

스페인어 자격시험 DELE

DELE는 스페인 교육부의 이름으로 Instituto Cervantes

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공인자격증이다. 스페인어의 언어적 능력과 경쟁력을 증명한다. 한국외대는 Instituto Cervantes와 협정을 맺은 DELE 시험 시행 기관으로 매년 5, 7, 11월 3차례 DELE 자격 시험을 진행한다. 시험을 통해 획득한 DELE 자격증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된다.

문의 02-2173-2498 **홈페이지** <http://dele.hufs.ac.kr>

세르반테스 교실(Aula Cervantes) 스페인어 강좌

외국어연수평가원은 스페인 세르반테스 문화원과 협력해 교내에 세르반테스 교실을 개설해 2015년 1월부터 스페인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어 일반어 학과정(입문, 초급, 중급, 고급), DELE 시험대비반(B1, B2, C1), 단기특강(DELE문법, DELE구술대비반, 축구스페인어, 여행스페인어) 등 모든 강좌는 전문 원어민 강사가 직접 진행한다. 2018년 9월부터는 평일 오전과 토요일에도 일반어학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문의 02-2173-3593 **홈페이지** <http://seul.cervantes.e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AulaCervantesSeul>

서울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서울평생교육원은 통번역센터와 협업해 ‘통번역기초과정’을 운영한다. 2014년 개설해 현재까지 350여 명이 수강한 통번역기초과정은 한국외대의 통번역 교육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며, 통번역의 기초 기술을 학습함으로써 외국어 구사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9개 언어에 대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며, 연 2회 3, 9월에 개강한다. 통번역에 관심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02-2173-2524 **홈페이지** <http://edulife.hufs.ac.kr>

FLEX센터

2020년 FLEX 정기시험 일정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시험은 한국외대가 수년의 개발을 거쳐 1999년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관리하는 전문 외국어 능력시험이다. 외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 능력을 공정

하고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다. 현재 주요 7개 언어인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의 정기시험을 연 4회, 3개 영역(듣기·읽기·쓰기·말하기)으로 나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FLEX는 모든 평가 언어가 듣기·읽기 영역에서 국가공인자격을 획득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뢰도와 변별력이 높은 시험으로 평가받는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2021년 FLEX 정기시험 일정

구분	접수기간	시험일	성적발표일	
			듣기·읽기	쓰기/말하기
1회	02. 25 ~ 03. 03	03. 28	04. 16	04. 30
2회	04. 29 ~ 05. 05	05. 30	06. 18	07. 02
3회	08. 05 ~ 08. 11	09. 05	09. 24	10. 08
4회	10. 21 ~ 10. 27	11. 21	12. 10	12. 24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시행

FLEX센터는 국립국제교육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사업과 연계해 15개 특수외국어전문어학능력평가를 개발해 지난해 11월 14일(토) 2020년 제1회차 시험을 시행했으며, 2021년 5월 중 2021년 제1회차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다(시험 접수 4월 예정). 해당 시험은 '2020년 특수외국어교육진흥 시행계획(20. 3. 26)'을 근거로 개발한 특수외국어 어학 평가로서, 평가인증 체제의 활용을 확대하고 전문 인재 양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수외국어능력평가 응시자는 2021년도 국비 유학생 프로그램 관련 분야 지원시 해당 성적을 제출하고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문의 02-2173-2529, 2532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기관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 상시 시행

FLEX센터는 기업체, 정부, 공공기관, 학교, 학원, 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과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외국어 능력 평가를 상시 시행한다. 이 시험은 기존 정형화된 시험과는 달리 의뢰 기관에서 시험 내용, 시행 일정 등을 자유롭게 지정해 진행할 수 있다. FLEX센터의 외국어 능력 평가는 국내 주요 정부기관, 공기업,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 인사 고과, 승진, 해외 파견 대상자 선발 등에 폭넓게 활용한다.

문의 02-2173-2530 **홈페이지** <http://flex.hufs.ac.kr>

TESOL전문교육원

2020학년도 후기(36기) 영어세미나(Practicum)

진행 및 수료

TESOL전문교육원은 지난 12월 21일(월)~1월 2일(토) 2주 동안 학기의 마지막 과정인 영어세미나를 진행했다. 영어세미나는 지난 2학기 동안 TESOL연구과정을 수강한 36명의 학생이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직접 교수님과 다른 학생 앞에서 시연하고 평가받는 마지막 평가 과정이다. 7명의 원어민 교수님이 평가에 참여했고, 영어세미나 평가를 마지막으로 34명의 수료자와 2명의 이수자로 2학기를 마쳤다.

2021학년도 후기(37기) 교육생 일반/특별전형

모집 진행

TESOL전문교육원은 3월 2일(화) 개강을 목표로 하는 2021학년도 전기 과정생 일반 및 특별전형 모집을 진행했다. 일반전형은 2020년 10월 26일(월), 특별전형은 1월 4일(월)부터 1주일 동안 원서 접수가 진행됐고, 2020년 11월 8일(일)과 1월 17일(일) 지원자를 대상으로 면접 전형을 치렀다. 지원자는 영문 자료 읽기와 영어 인터뷰를 했고, 이 과정을 통과한 40여 명이 2021년 전기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2020학년도 후기(36기) 온라인 수료식 개최

TESOL전문교육원은 2월 20일(토) 오전 11시 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료식을 개최했다. 원래는 수료식이 같은 날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TESOL전문교육원장과 주임교수를 비롯해 지난 2학기 동안 TESOL과정을 가르친 5명의 교수가 참석해 수료생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20여 명의 수료생은 온라인으로 참석해 모두의 수료를 함께 축하했다. 이날 수료식은 원장과 교수들의 축하 인사, 한 학기 동안 반장으로 수고한 학생들에게 공로상 수여, 최우수 성적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가지며 1시간 정도 진행됐다.

한국문화교육원

겨울학기 한국어 정규과정 및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 개설

한국어문화교육원은 연 4회, 10주로 구성된 한국어 정규과정과 고급 한국어 구사를 위한 필수 과정인 통번역을 위한 한국어 과정을 개설했다. 이번 겨울학기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한국어 과정을 함께 개설해 해외 체류 중인 한국어 학습자를 유치했으며,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 우리 교육원에는 중국이나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권 국가 외에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45여 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학생이 교육받고 있으며, 다른 대학과 차별화된 말하기 중심 수업으로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문의 02-2173-2262

국제사회교육원/영재교육원

2021년 삼성외국어생활관 주재원

실무역량강화과정 운영

국제사회교육원(원장 현재훈,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교수)은 1~3월까지 삼성외국어생활관 주재원 실무역량강화과정을 2회에 걸쳐 운영했다. 교육생들의 현지 비즈니스 능력 신장을 목표로 개설된 이번 과정은 현지 어학 능력 신장을 위한 어학 교육 콘텐츠와 함께 각 파견 지역의 지역 이해를 돕기 위한 지역학 교육 콘텐츠로 구성된다. 교육을 마친 교육생은 소정의 평가를 통해 현지어 기반의 비즈니스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한편, 각 파견지로 부임해 업무 일선에서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통번역센터

국내 최고의 통번역 서비스 제공

통번역센터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및 학부와 연계해 최정상급 다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역은 매년 260여 건 이상 11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의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고, 번역은 매년 1,800건 이상 14개 언어(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

어, 포르투갈어, 터키어, 이탈리아어)의 전문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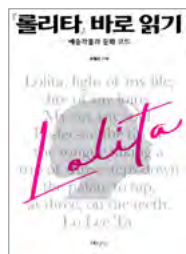
문의 02-2173-2566, 2569 **홈페이지** <http://hufscit.com>

새로
나온
책

터키어 표준 교재 A1

터키어 표준 교재로, 이 교재를 기반으로 학습자들은 향후 터키어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습득해 기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평생교육으로서의 터키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 및 자신감을 유지하면서 터키 사회와 문화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 능력과 포용적 태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규석, 오종진, 이난아, 양민지 / 192면 / 46배판 / 22,000원



「롤리타」 바로 읽기

“롤리타”는 러시아의 망명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를 최고의 영어 소설가 반열에 올린 작품으로 유명하다. 그가 영어로 집필한 세 번째 작품이었고, 그후로도 더욱 발전할 새로운 문학 실험의 신흥탄이었다. 저자의 “롤리타” 바로 읽기는 이제 그 창조자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인 듯 보인다.

권철근 / 358면 / 신국판 / 22,000원

말레이시아 법제사

오늘날 서부 말레이시아인 말레이반도에서 말레이인
들이 고대부터 최근까지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
들만의 독특한 법제도를 형성·발전시켜 왔는지 개괄
해 본 역사서다. 근대화를 선점하고 규격화한 서구의
대표적 근대화 이론 중 하나인 전통—근대 이분법적
구도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좁게는 말레이시
아, 넓게는 동아시아 문명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올
바른 이해와 예측을 시도한다.

소병국 / 116면 / 128*188 / 12,000원

존 벤자민스 통번역 총서 06-통번역과 인지

이 책은 인지 통번역학이라는 새로운 학제간 연구 분야의 가능성에 주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인지 통번역학 분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일천하며, 앞으로 탐구해 나가야 할 미지의 영역이 너무나 많음을 보여준다. 이 책이 인지 통번역학 분야 연구자로서 길을 마를 땐 역자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듯이 국내 통번역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지적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Gregory M. Shreve, Erik Angelone / 568면 / 신국판 / 34,000원



시진핑의 외교 연설

「시진핑 언어의 힘」 시리즈 중 하나로, 시진핑의 예술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외교적 언어의 모음집이라 할 수 있다. 공개 석상에서의 연설, 인터뷰 내용, 18차 당 중앙 외교 업무에서의 연설 내용을 설명했으며, 시진핑이 외교 활동 중 사용한 특색 있는 언어를 ‘서문’ 형식 비유 편 ‘속어 편’ ‘시 인용 편’에 나누어 담아내 눈길을 끈다.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편집위원회 / 336면 / 신국판 / 23,000원

폭풍우

폭풍우는 셰익스피어의 기존 작품에 나타나는 다양한 주제가 집약돼 상상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극이다. 딸의 배우자 선택으로 인해 겪는 아버지와 딸의 갈등, 합법적 통치자와 관련한 의심스러운 배반, 공정 사회에서 전원 세계로 이동과 귀환의 약속, 타자를 조종하는 꿈의 세계 등장, 자연과 초자연의 관계, 마법의 실현 등을 다룬다. 셰익스피어의 단독 마지막 작품으로 다양한 주제가 어우러져 더욱 의미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 152면 / 국판 / 10,000원



전자상거래

온라인이라는 개념에서 PC 기반의 상거래를 시작으로 모바일 기반의 모바일 커머스, PC와 모바일이 융합된 소셜 커머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들과 융합된 전자상거래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무인운송 등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사회적·기술적 변화 환경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펴낸 책이다.

조준서 / 190면 / 152*225 / 14,000원



2021년 전기 학위 수여 온라인 개최

사이버한국외대는 2월 27일(토) 2021년 전기 학위 수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학위 수여에서는 학사 853명, 석사 8명 등 모두 86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생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위 수여식을 거행하는 대신 학사·석사 학위 수여자 대표와 총장상 수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1년 전기 학위 수여 및 상장 수여, 김종렬 총장의 졸업 축하와 학부·학과별 졸업 축하 등을 담은 영상은 대학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했다.

2021학년도 1학기 온라인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
사이버한국외대는 2021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영상으로 제작해 대학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김종렬 총장은 입학 축하사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입학학생들을 환영하고,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학 전 구성원이 적극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 생활 및 온라인 학습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게 학사 제도와 강의 수강 및 콘텐츠, 대학 생활 안내 등으로 구성된 오리엔테이션 영상과 자료를 제공했다.

차세대 글로벌 학습관리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12월 다양한 디바이스와 브라우저에서 안정적이고 편리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학습 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차세대 글로벌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해 선보였다. 이어 2월에는 최신 웹트렌드와 웹표준을 적용하고, PC·모바일·태블릿 등 다양한 디바이스 맞춤형 자원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한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경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들의 편의를 강화했다.



온택트로 하나 되는 축제 '2020 쿠페스타' 개최

사이버한국외대는 지난 12월 19일(토) 줌(zoom)을 통해 '2020 쿠페스타(CUFESTA)'를 개최했다. 쿠페스타는 매년 학교와 총학생회가 뜻을 모아 대학 모든 구성원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화합하고자 진행해온 학생 축제다. 2020년에는 오프라인 행사 진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전 세계 각지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자랑, 시합시 짓기 등 다양한 이벤트로 구성된 '온라인 축제의 장'을 마련해 실시간으로 진행했다.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담당자 한국교육개발원장 표창 수상

사이버한국외대 기획처 기획팀 엄종섭 직원이 한국교육개발원(KEDI)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대학은 지난 12월 21일(월)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포상 시상식'을 열고 김종렬 총장이 엄종섭 직원에게 한국교육개발원장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는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 사업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에 기여한 바가 큰 담당자에서 수여하는 표창으로, 2020년에는 국내 고등교육기관 담당자 중 20명이 선정됐다.

K-MOOC에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대비과정(2급)' 묶음 강좌 운영

사이버한국외대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서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 대비과정(2급): 게임화용합설계' 묶음 강좌를 3월 2일(화)부터 6월 14일(월)까지 운영한다. 이 강좌는 해당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묶음 강좌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 활용해 좀더 흥미롭고 몰입감 있는 콘텐츠로 개발했다. 수강 신청은 K-MOOC 홈페이지에서 3월 29일(월)까지 받으며, 강좌를 이수하면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어학부 졸업생, 2020 세계한국어대회 '한국문화교육 영상공모전' 입상

세계한국어대회를 주관하는 세종학당재단이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 활성화 및 우수 사례 발굴에 기여하고자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문화교육 영상공모전'에 사이버한국외대 한국어학부 졸업생들이 참여해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학부 졸업생 2개 팀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알쏭달쏭 한국어 관용어 표현'과 '한국문화 속 도깨비 찾기' 영상을 제작해 공모전에 응모했으며,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HUFS Alumni

동문 출간



구양근 동문(前 성신여대 총장·駐 대만 한국대표부 대사), 한국작가교수회 회장 취임
우리 대학 구양근(중국어과 61) 동문이 한국작가교수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작가교수회는 소설을 쓰는 작가이자 소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의 모임으로, 4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구양근 동문은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주 대만 한국대표부 대사를 역임했다.



이상훈(중국어 79)
이상훈의 중국 수다 (올림)



장소미(프랑스어 06)
하루10분 하브루타 엄마표 영어 (서시원)



정해웅(영어통번역학 10)
사장님 얼마나 바십니까 (부크크)



조갑동(스페인어 55) 역
푸름(Azul) (그린비)



조갑동(스페인어 55) 역
쿠바의 한인들 (자유미디어)

구양근(중국어 61)
작가교수세계(통권23호) (한국작가교수회)



석원(인도어 98)
스타디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북스)



임지(산업경영공학 08)
좋은 건 같이 봐요 (북로망스)



2020.12.01.~2021.02.28.

HUFS Alumni

공공기관

금융

이승민 법학85 근로복지공단경영지원국장
이동원 경제8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이스탄불무역관장
정덕래 스페인어9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티아고무역관장
박은균 중국어9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우한무역관장
민화정 스페인어9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과테말라무역관장
한석우 영어통번역9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일제무역관장
박은희 노어9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경기북부KOTRA지원단장
김윤태 행정8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시간벤선실장
박한진 중국어통번역8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KOTRA아카데미원장
이화상 국제통상(석)0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보화혁신실장
김성수 노어8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디지털 · 그린 · 프로젝트실장
한연희 스페인어통번역9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회작가치실장
변용섭 중국어9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디지털무역팀장
박창은 국제경영9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홍보실장
이관규 중국어9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보보안운영팀장
이정상 포르투갈어9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장
정석수 포르투갈어9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융복합산업팀 ICT대외협력PM
엄익현 국제통상9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디지털전환PM
유성준 정치외교9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총무팀 안전관리PM
지윤정 포르투갈어9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산북방 동북아팀 남북경협PM
김신아 중국어9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보보안팀 개인정보보호PM
최정석 스페인어8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일자리사업담당 연구위원
이정욱 법학9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장
조주환 경영96 예금보험공사 인사지원부 수석책임역
이광진 행정90 중소기업공사 인사조직처 처장
권홍철 행정83 한국가스공사 인사조직처 처장
김명남 정치외교87 한국가스공사 마케팅기획처 발전영업부 부장
이학수 독일어98 한국가스공사 당진기간시설단 관리부 부장
민성기 독일어교육85 한국가스공사 마케팅기획처 발전영업부 부장
진수남 프랑스어81 한국가스기술공사 경영지원본부장
이상우 경제87 한국관광공사 MICE기획팀장(2급)
김형준 포르투갈어91 한국관광공사 안내교통팀장(2급)
김종훈 이탈리아어86 한국관광공사 관광일자리팀장(2급)
박인식 스칸디나비아어83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센터장
김태윤 일본어85 한국관광공사 비서팀장
황건혁 마인어95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전략팀장
마정민 한노(석)00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진흥팀장
장찬욱 일본어84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장
우형민 철학93 한국국제교류재단(KF) 전략기획부장
한재호 영어통번역85 한국국제교류재단(KF) 문화사업부장 겸 학술교역사업부장
오기석 경영정보86 한국여초공사 충남본부 당진지사장
조준연 영어85 한국도로공사 원주지사장
이경철 법학88 한국무역보험공사 리스크총괄실장
정지현 국제통상89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장
임준연 국제경영84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 대평지사장
방석배 환경91 한국수자원공사 영주영지사장
한덕규 행정89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자산매각지원처장
임태훈 독일어87 한국자산관리공사 강원지역본부 춘천지사장
설상문 행정85 한국전력 영광지사장
김성현 아랍어97 한국조폐공사 기획조정처 미래뉴딜기획팀장
윤태호 수학86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 주거복지사업처장
강구환 영어84 한국투자공사(KIC) 사모주식투자실장
송성준 법학92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검사처 처장
박한규 독일어87

이장훈 법학88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부장
황준구 사학85 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경영지원부장
김기동 중국어통번역86 농협금융지주 NH농협생명 투자전략부장
강문규 영어통번역89 농협금융지주 NH농협 합천군지부장
박대성 법학88 다우키움그룹 키움증권 프로젝트투자본부장(전무)
김성훈 국제경영85 다우키움그룹 다우키움그룹 부사장
조지은 한영(석)88 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 대표이사
황병준 경영90 미래에셋그룹 기업금융심사본부장(상무보)
이영호 노어88 산업은행 평택지점 팀장
양원모 러시아학91 삼성증권 상무
백송호 일본어85 삼성화재 전무
이정윤 법학87 신용보증기금 플랫콤금융부장
이도영 정치외교84 신용보증기금 인천지점 본부장
박주현 법학88 신용보증기금 4.0창업부장
강경탁 국제통상85 신용보증기금 광주첨단지점장
황한거 신문방송89 신용보증기금 통영지점장
왕호민 법학84 신한금융지주 준법감시인(부사장)
김계홍 국제경영(석)02 신한금융투자 인사부 이사
김지일 스페인어86 신한금융투자 AMC당금융센터장
이재균 중국어84 신한생명 부사장
이봉재 독일어88 신한은행 인천국제공항지점 지점장
김창진 이탈리아어89 신한은행 이천금융센터 리테일지점장
김재영 스페인어89 신한은행 평택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김상중 법학88 신한은행 서교동기업금융센터 기업지점장 겸 RM
나호진 국제통상89 신한은행 미사금융센터 센터장 겸 RM
김윤영 경제87 신한은행 송원동지점 지점장
최태석 경영정보89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파트너본부장(전무이사)
박종일 법학83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전무
김영중 경영91 우리금융지주 · 우리은행 투자금융부 부장대우
함병수 독일어86 우리금융지주 · 우리은행 성수동금융센터 영업그룹장
김광섭 행정87 우리금융지주 · 우리은행 성남금융센터장
배연수 행정90 우리금융지주 · 우리은행 토명지점장
임광호 브라질학89 우리금융지주 · 우리은행 동해지점장
권동순 이란어91 우리금융지주 ·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사장
강치현 법학86 우리금융지주 · 우리은행 소비재지원부 부사장
김정기 포르투갈어85 주택금융공사 유통화자산부장
유광훈 베트남91 한국수출입은행 전대금융부장
황정욱 국제통상90 한국수출입은행 정보통신금융부장
전시덕 영어85 한국수출입은행 다카사무소장
박재형 경제87 한국증권금융 꿈나눔재단 사무국장
윤형준 국제통상82 한국투자금융지주 경영지원실장(전무)
강태현 경영88 현대해상 현대C&R 교육사업본부 상무(본부장)
채한식 정치외교83 IBK기업은행 강서제주지역본부장
구홍모 마인어85 IBK기업은행 마들역지점장
최유식 영어통번역84 IBK기업은행 광명지점장
박경일 터어키어90 IBK기업은행 베트남 하노이지점장
조혜성 스페인어통번역91 IBK기업은행 Pre-CEO(에비지점장)
양태훈 영어98 IBK캐피탈 IB지원부장
민경배 경제88 IBK캐피탈 영남금융센터장
박성수 국제통상83 KB국민카드 마케팅본부 부사장
성백준 경제85 KB국민카드 경영기획본부 상무

Alumni News

HUFS Alumni

2020.12.01.~2021.02.28.

기업

배세남	경제85	SGI서울보증 구로디지털지점장
손영룡	경제88	SGI서울보증 상품개발부장
최종섭	경영89	교보생명 관계사지원팀장
정웅제	이탈리아어86	보령제약 Rx부문 의원영업본부장(전무)
조현웅	전자물리85	세아그룹 세아제강 이사보
최장권	경제92	유진그룹 서울WM센터 2센터장(부장)
강병수	일본어통번역86	팬스타그룹팬스타엔터프라이즈 최고정보책임자(CIO) 겸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미래사업본부 사장
박정수	중국어87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그룹 중국전략기획담당 상무
박정수	이란어91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그룹 재무회계담당 상무
이영미	글로벌CEO14	한미약품그룹 한미약품 전무
이창환	화학87	화승그룹 화승케미칼 이사
박형민	태국어통번역89	효성그룹 효성첨단소재 경영전략실 상무
윤도선	중국어81	CJ그룹 CJ중국본사 대표이사
이병현	스페인어98	CJ그룹 CJ대한통운 상무대우

정부기관

김형원	태국96	강원 경찰청 수사부 안보수사과 안보수사1대장
심영중	포르투갈82	경기 양주시 자치행정과 4급 (교육대기)
김순호	공공정책(석)03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권태란	러시아학86	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경찰서 청문감사관
김영근	공공정책(석)05	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경무관)
변인수	중국어통번역89	경찰청 수사과장(총경)
이민재	네덜란드89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
임현철	공공정책(석)13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
이원상	러시아학89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육지원과장
김용례	프랑스88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장
윤용태	아프리카85	새만금개발청 대변인
김승룡	독일87	소방청 전라북도 소방본부장(소방준감)
채수중	아랍85	소방청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장
김인철	스페인어문(석)87	외교부 주필리핀대사
김영채	영어84	외교부 주나이지리아대사
정준희	행정81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하태영	공공정책(석)03	해양경찰청 보령해양경찰서장
박용화	중국어통번역95	한법재판소 심판지원총괄과 법원서기관(4급)

언론

이종근	스페인어84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국장)
김정근	신문방송87	경향신문 편집국 디지털뉴스편집장(부국장)
홍진수	정치외교94	경향신문 산업부 차장
정진영	영어81	국민일보 종교국장 겸 دعا자
김광동	영어통번역84	농민신문사 취재부국장
양승선	영어통번역92	농민신문사 간행사업부장
김용석	행정93	동아미디어그룹 산업1부 부장
이인모	경영정보87	동아일보 대전충청취재본부 부장급
신치영	영어통번역85	동아일보 채널A 전략기획본부장
김고금평	스페인어90	머니투데이국장석 에디터
정기웅	영어9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살예방상담팀장(3급)
정희영	신문방송8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작권침해대응팀장(3급)
김종서	스칸디나비아어80	서울경제신문 선임기자 겸 부국장
박용채	일본어79	서울미디어그룹 콘텐츠본부장 겸 독서신문 편집주간
류기혁	정치외교83	서울신문사편집국 편집2부 선임기자(국장급)
임철재	아프리카84	서울신문사광고국 광고전략부장(국장급)
김상연	스페인어86	서울신문사 논설위원실 논설위원(부국장급)
안동환	신문방송93	서울신문사 탐사기획부장(부장급)
김청중	신문방송89	세계일보 편집국 부장대우
안백수	신문방송93	언론중재위원회 교육팀장
배경록	마인어77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
안홍진	국제통상75	오피나인타임스(구 논객닷컴) 부회장
안덕기	신문방송83	조선일보 편집국 뉴스편집 에디터(부국장)
김진수	컴퓨터공학85	코리아헤럴드 마케팅국장
김경욱	행정98	한겨레 사회부 보조팀장
김영락	정치외교84	KBC 광주방송 KBC 플러스 대표이사
김성일	영어90	KBS 경영본부 자산운용국 지역신청사프로젝트 팀장
이현순	미학(석)13	KBS 원주방송국장
김원	중국어94	MBC 시청자커뮤니케이션 부장
김재용	신문방송92	MBC 정치팀장
이세욱	신문방송94	MBC 스토레이트 팀장
김효엽	중국어91	MBC 뉴스데스크 에디터
김정호	국제통상90	MBC 뉴스데스크 편집팀장
정성엽	법학92	SBS 보도본부 사회부 법조팀장(부장)
이재춘	행정81	SBS 라디오센터 부국장
주시평	영어90	SBS 시사교양본부장

기타

임영빈	정치외교77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
민병현	영어94	생명보험협회 소비자보호실 소비자보호팀장
김지훈	영어통번역89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장
이규상	경영정보(석)0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수학습지원부장
안종근	국제경영97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고객가치컨설팅센터장
강현철	법학85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문태현	경영84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김혜진	일본(석)02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장
김종욱	전자물리82	한국전기연구원 시험지원부장
장광진	정보관리(석)01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사평가팀장
성무석	영어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영지원본부 전임행정원

Donation News

HUFS Donation



조희환 명예교수, 학교 발전기금 2억원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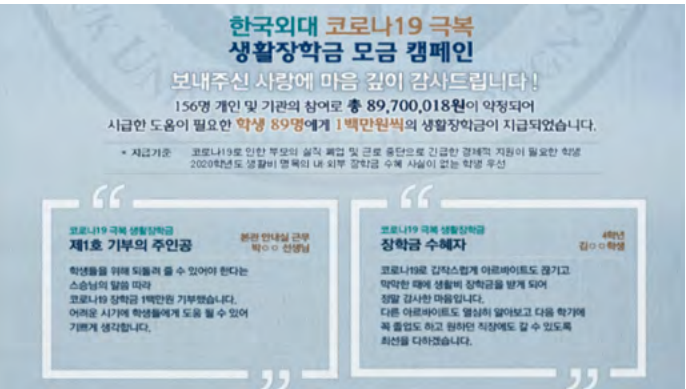
우리 대학 조희환 중국학대학 명예교수(중국어 59)가 2월 1일 (월) 김인철 총장을 예방하고 학교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기탁했다. 조희환 명예교수는 “모교의 외국학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기탁한다”면서 국내 유일한 글로벌 대학으로서 외국학 발전을 위해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기탁식에서 김인철 총장은 조희환 명예교수의 뜻에 따라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병법 원리에 따라 중국학, 프랑스학, 중동지역학 등 외국학 또는 국제지역학 분야 최고 전문가 양성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 동시에 많은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이려 우수한 한국학 보급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김인철 총장, 이재원 대외협력처장, 강준영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 배석해 자리를 빛냈다.

조희환 명예교수는 1959년 한국외대 중국어과에 입학한 이후 우리 대학 대학원에 진학해 아시아지역연구학과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만으로 유학해 국가법학 박사를 취득한 이후 모교인 우리 대학에서 중국학대학 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다. 저서로 『중국전통정치의 특징』(중문판 학위 논문), 『동북아시아연구: 사회문화』, 『중국의 실체와 정책』, 『한반도에 서의 국운의 윤곽』, 『한반도와 국운』이 있다.



영미문학·문화학과 배시준장학금 1억원 기탁

지난 2월 16일(화) 영미문학·문화학과 배시준 학생의 학부모가 우리 대학을 방문해 배시준장학금 1억원을 기탁했다. 배시준 학생의 학부모는 “영미문학·문화학과 학생들이 미래를 향해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장학금 기탁 소회를 밝혔다. 자녀 이름을 따 만들어진 배시준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영미문학·문화학과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극복 생활장학금 캠페인 약정 금액

8,970만원, 학생 89명에게 1백만원씩 지급

우리 대학은 지난해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생활비가 부족해 학교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생활장학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캠페인에 156명의 개인 및 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4개월 동안 모두 8,970만원을 약정해 학생 89명에게 생활장학금 1백만원씩을 지급했다. 이재원 대외협력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된 학생들을 위해 앞으로도 외대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Donation News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고광현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1	1,000,000
김철동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87	500,000
김형식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98	100,000
류해필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77	1,000,000
박인나	통번역대학원(석) 한노과 07	500,000
박희재	서양어대학 노어과 10	50,000
백송아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86	1,000,000
서유경	통번역대학원(박) 한노전공 04	500,000
소담	서양어대학 독일어과 12	100,000
안향원	인문대학 사학과 19	10,000,000
양상현	서양어대학 포르투갈어과 88	1,200,000
양해준	일본학대학 일본어과 00	20,000,000
이경태	인문대학 철학과 95	500,000
이정미	통번역대학 스페인어통번역학과 13	2,000,000
천만석	아시아언어문화대학 태국어과 90	1,000,000
최종호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80	400,000
홍영표	아시아언어문화대학 이란어과 81	10,000,000
이명의 동문	동문	600,000
권기수	외대교수	1,600,000
김동환	외대교수	2,000,000
김해동	외대교수	600,000
유진일	외대교수	500,000
윤경원	외대교수	5,000,000
윤은경	외대교수	3,000,000
윤재욱	외대교수	5,000,000
정한중	외대교수	3,000,000
조화환	명예교수	200,000,000
(재)외대동문장학회	동문단체	12,000,000
LA G-CEO 14기	동문단체	16,291,114
재심천외대동문회	동문단체	1,000,000
한국외대 학군단 56기 동기회	동문단체	2,000,000
글로벌캠퍼스 신우회	교내단체	2,100,000
외대비전교회	교내단체	1,000,000
외대축구부	교내단체	10,000,000
나찬휘	가타(가맹인)	5,000,000
박상선	가타(가맹인)	100,000
차상석	가타(가맹인)	20,000,000
(주)다우기술	가타(가업)	12,000,000
(주)교보문고	가타(가업)	4,700,000
(주)대구은행	가타(가업)	843,200
(주)빛나에스티	가타(가업)	3,000,000
(주)세이브	가타(가업)	6,000,000

성명	소속	약정합계(원)
(주)썬에드	기타(기업)	2,700,000
(주)엔에스소핑	기타(기업)	11,000,000
(주)이엔케이코리아	기타(기업)	7,000,000
(주)파유	기타(기업)	10,000,000
(주)베퍼저축은행	기타(기업)	25,000,000
(주)한국경제신문	기타(기업)	1,000,000
국민은행 이문동지점	기타(기업)	5,000,000
에이스관세법인	기타(기업)	10,000,000
이룸경영연구소	기타(기업)	100,000,000
이에이치알앤씨 주식회사	기타(기업)	5,000,000
카다리영어	기타(기업)	1,600,000
(재)조준장학재단	기타(단체)	1,520,500
(재)홍한재단	기타(단체)	12,000,000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기타(단체)	14,573,000
강철은 장학재단	기타(단체)	5,481,500
남정장학재단	기타(단체)	7,500,000
대한예수교장로회 수서교회	기타(단체)	1,500,000
두산연강재단	기타(단체)	13,442,000
롯데장학재단	기타(단체)	45,360,500
미래의동반자재단	기타(단체)	5,360,500
미래인재육성재단	기타(단체)	10,096,000
백운장학재단	기타(단체)	2,500,000
삼성복지재단	기타(단체)	11,100,000
성음문화재단	기타(단체)	2,000,000
세아해암장학재단	기타(단체)	2,000,000
송화재단	기타(단체)	4,000,000
아산사회복지재단	기타(단체)	15,137,000
인촌기념회	기타(단체)	3,360,500
일주학술문화재단	기타(단체)	10,757,500
재단법인 김준기재단	기타(단체)	16,802,500
재단법인 문숙장학재단	기타(단체)	3,000,000
재단법인 연당장학회	기타(단체)	2,000,000
재단법인 유경재단	기타(단체)	3,000,000
재단법인 인촌	기타(단체)	1,500,000
재단법인 하나금융나눔재단	기타(단체)	2,000,000
재단법인 해강대성장학회	기타(단체)	2,000,000
정수장학회	기타(단체)	18,155,500
하영호장학재단	기타(단체)	4,500,000
한국지도자육성재단	기타(단체)	18,268,500
해성문화재단	기타(단체)	10,114,500
현마음영재단	기타(단체)	28,937,000

간편한 약정을 원하시면 발전협력팀(02-2173-275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 학교발전기금 약정서

기 부 인	성명(상호)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 자택			
		☐ 직장			
	인 적 사 항	근무처		부서/직위	
		연락처		E-mail	
구 분		동문	학과명	입학 연도	년
	비동문				
기 부 지 정 분 야	학교 발전기금		☐ 학교에 용도를 위임합니다 ☐ 교육 ☐ 연구 ☐ 시설 (건축 및 기자재)		
	장학금		☐ 장학금 : 대학 과 또는 장학명		
	학과, 연구소 발전기금 외		☐ 학교발전 : 대학 과(부) ☐ 기타 ()		
약정(기부) 총액		☐ 현금 원 ☐ 현물			
납부 기간 및 방법	일시납		☐ 1회 완납 (금 원) 년 월 일 납부(예정)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6-05-031630 한국외국어대학교		
	분납 자등이체		☐ 월납부액 (원, 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이체일 : ☐ 15일 ☐ 말일		
	분납 급여공제(교직원용)		☐ 월납부액 (원, 회) 사 번 ()		
기부 권유자		성명 : 연락처 :		*기재하신 사항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됩니다.	

위와 같이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기금을 약정(기부)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인: _____ (서명)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귀하

약정(기부) 방법 안내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팩스	02-2173-2785 이메일 hufsfund@hufs.ac.kr
	우편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협력팀
	전화	02-2173-2756

※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반드시 V(체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한국외국어대학교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정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금관리 용도로만 사용되며, 『한국외국어대학교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기부 약정에 입력되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는 발전기금의 약정 및 기부처리,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예우, 기부내역 관리, 기부행사 안내 및 홍보의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택주소 또는 직장주소), 연락처(지택 전화번호 또는 직장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자동이체 시), 사번(급여공제 시)
- 선택항목: 위 필수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부자 정보에 대한 기록 보존이 필요한 시기까지 보관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기부금 약정 이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부자 예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기부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인 필수항목 미 작성 시 기부처리 불가)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거부입력을 위해 고위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필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거부행사 안내 및 홍보를 위하여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선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우리 대학에서 보내드리는 소식지,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 발송 및 연락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성명, 학과, 학번,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발송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으로서 개교 67주년을 맞이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취 거부 연락 주실 곳
발전협력팀 전화 : (02)2173-2756 이메일 : hufs5@hufs.ac.kr

물칠하는 곳

접는 선



접는 선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한국외국어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협력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0 2 4 5 0



HUFS, 세계를 품다 한국외대, 미래를 열다



Come to HUFS Meet the World

HUFS에서 뉴욕까지 0km!
세계를 바로 만나는 국제화 1위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뉴욕에서 아프리카까지 세계를 더 크게 품는
글로벌 융복합 미래 인재를 키웁니다.



* 전 세계 98개국 832개 대학/기관과 교류

입학안내
02-2173-2500 / <https://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서울캠퍼스 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EL. 02.2173.2114
글로벌캠퍼스 1703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TEL. 031.330.4114